

2015년 성인간호학회 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 교육 수월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진로**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일시 : 2015년 4월 10일(금) 9:00~18:00

장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

주최 : 성인간호학회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 인사말 |

성인간호학에 대한 사랑과 새로운 교육방법을 알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회원 여러분께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성인간호학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는 임숙빈 간호과학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의 특징은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outcome based curriculum)과 그 내용 평가에 있습니다.

국내외 간호학 교육과정의 변화 및 인증평가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학회차원에서 교과목의 내용과 학습 성과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5년도 학술대회는 성인간호학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신 교육전략을 소개하여, 최신 교육과정 모델 및 개발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인간호학 연구, 교육, 실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의 달인 박주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예술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해주실 것입니다. 두번째 주제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입니다. 기존의 학습모델은 교수의 강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수업 후에 과제를 통해 응용 및 적용을 하는 반면,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은 수업 전에 비디오 등과 같은 학습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수업시간에는 토론을 통해 지식의 응용에 집중하는 학습법입니다.

본 학회는 플립드 러닝을 실제 교육에서 적용하고 계신 임진혁 교수님의 플립드 러닝의 교수학습법, 장단점, 효과 등을 소개함으로써, 간호학 교육과정의 변화 및 인증 평가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교육전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부에서는 2012년 작성한 성인간호학 학습목표를 2016년 간호사국가시험 성인간호학 출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워크샵과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지연 교육위원장의 발표가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학회의 강연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신 박주현 교수님, 임진혁 교수님, 강지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성심으로 준비해주신 오의금 학술위원장님과 임원 한분 한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롭게 변화하는 보건의로 환경에서 간호교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4월

성인간호학회장 **조 경 숙**

2015년 성인간호학회 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 교육 수월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진보**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일시 : 2015년 4월 10일(금) 9:00~18:00

장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

주최 : 성인간호학회

사회 : 오익금 학술위원장(연세대학교)

09:00~09:20	등록 및 포스터 부착	
09:20~09:30	개회사 축사	조경숙 학회장(가천대학교) 임숙빈 회장(을지대학교/한국간호과학회장)
09:30~10:30	주제강연 1	
	Art of presentation	박주현 교수(울산대학교)
10:30~10:40	휴식	
10:40~12:00	주제강연 2	
	Flipped learning	임진혁 교수(울산과학기술대학교)
12:00~13:30	점심 및 임시총회	

사회 : 김상희 학술위원(연세대학교)

13:30~14:00	논문발표 1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이 건강증진 행위와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	최희정 교수(가야대학교)
14:00~14:30	논문발표 2	
	방사성 옥소(131I) 치료 예정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성과와의 관계	이현주(연세대학교 박사과정)
14:30~15:30	주제강연 3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강지연 교육이사(동아대학교)
15:30~16:00	우수포스터 수상 및 폐회	조경숙 학회장(가천대학교)

2015년 성인간호학회 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 교육 수월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진보**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일시 : 2015년 4월 10일(금) 9:00~18:00

장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

주최 : 성인간호학회

주제강연 1	Art of presentation	03
주제강연 2	Flipped learning	19
논문발표 1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이 건강증진 행위와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	45
논문발표 2	방사성 옥소 ⁽¹³¹⁾ 치료 예정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성과와의 관계	75
주제강연 3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87
	포스터 발표	101

2015년 성인간호학회 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 교육 수월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진보속**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일시 : 2015년 4월 10일(금) 9:00~18:00

장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

주최 : 성인간호학회

주제강연 1

Art of presentation



박주현 교수
울산대학교

Art of Presentation

울산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박주현

공식이 되어 버린 이야기 (PPT 제작)

- 디자인의 형식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 글씨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크기로 (24 ~ 40 포인트)
- 3가지 이하의 색깔과 글씨체를 사용
- 도표, 그래프, 사진, 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
- 한 장의 슬라이드에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 한 장의 슬라이드는 6~7 라인 이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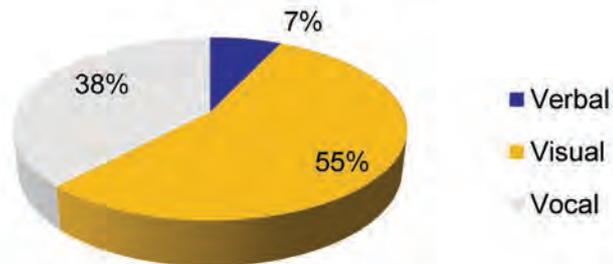
공식이 되어 버린 이야기 (발표하기)

- 예의, 복장, 말씨를 상황에 적절히
- 청중과 눈을 맞추고 청중의 눈높이에도 맞춘다
- 포인터의 지나친 사용을 주의
- 기-승-전-결 / 개요 - 요약 의 논리를 따른다.
- 관심을 집중 시키고 청중의 반응을 살핀다
- 시간엄수 및 질문.답변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

3V's in Presentation

- Verbal : 단어와 내용
- Vocal : 목소리의 톤, 크기, 빠르기, 변화
- Visual : non-verbal의 모든것, 제스처, 표정, 움직임

Present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Albert Mehrabian "Silent Message"

OUTLINE

- **Keep it simple & stimulating**
- **You are the presentation**
- **Be yourself, Show yourself**
- **Be together with audience**

1.

Keep It Simple and Stimulating (KISS)

중지않은 발표용 슬라이드의 예:

Presentation Tips

- Visual aids should highlight **key points**, not tell the whole story.
- **Never** put yourself in the dark or half-hidden behind equipment.
- You are the host. Think of your visual aids as a **good waiter**-there to assist you, not replace you.
- **PPT IS NOT A PRESENTATION.** You are the presentation.
- If you are not **appealing**, you are disappearing.



Simple & Stimulating

- 글자와 그림을 최대한 간단하게
- 문장의 전체 혹은 그림의 전체를 다 나열 할 필요가 없다.
- 애니메이션, 클립아트, 보조그림 등을 삽입하여 효과를 증가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 삽입하는 효과 혹은 이미지는 충분히 자극적이어야 한다. (고 품질, 흔히 보지 못하는 것, 핵심을 꽤 찌르는 것..)

2

You are the Presentation !

Powerpoint is not a presentation.

- PPT가 아니라 당신을 주목하게 하라
- PPT가 아니라 당신을 기억하게 하라
- 읽어서 알 수 있는 PPT를 만들지 마라
- 적혀진 대본 혹은 PPT를 읽지 마라
- 당신이 조명을 받아야 하고 PPT에게 등을 보이라.
- 필요하면 PPT를 꺼라
- Podium 앞으로 나서라

3

Be yourself. Show yourself.

- 청중은 PPT가 아니라 당신을 보고 듣고 싶어 한다.
- 불을 켜고 포디움 밖으로 나와라.
- PPT가 당신을 리드하지 않도록 하라.
- 당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라.
- 때로는 informal하거나 통상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 당신의 열정을 보여 주어라.
- 필요하면 당신이 직접 시범을 보여 주어라.

4

Catch & Keep the Att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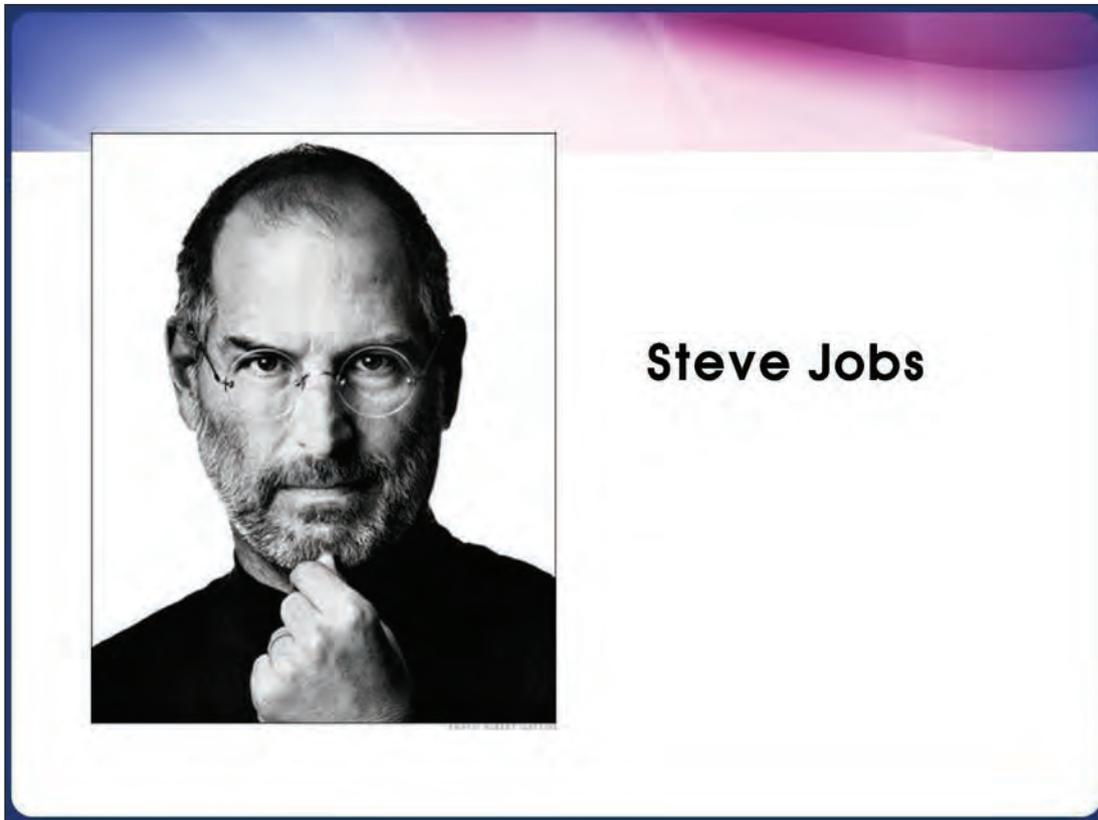
- 청중과 의사 소통 하라.
 - 눈길과 질문을 주고 받으며 청중을 참여시키라.
- 청중이 당신에게 집중하게 하라
 - 청중의 관심을 끌거나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중간 중간 요약과 재 설명으로 정리 하여야 한다.
 - 당신은 슬라이드가 아닌 청중에게 집중해야 한다.
 - 강의 보조물은 충분히 눈길을 끌 수 있어야 한다.

- 한 슬라이드에는 하나의 주제만을 다룬다.
- 한 슬라이드에 1분이상 머무르지 않는다.
- 중간 중간 진행 방식을 바꾼다.
- 슬라이드가 당신보다 앞서지 않게 한다.
- 자세한 정보 보다 의미를 보여 준다.
- 첫 순간과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을 전달한다.

5.

Be Professional.

- PPT는 당신이 쉽게 발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있는 것이다.
- 연습과 리허설을 충분히 하라.
- 발표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비책을 마련 하라
- 발표 후 항상 피드백을 구하라.
- 멀티미디어 자료 다루는 법을 마스터 하라.
- 발표 중 작은 문제는 그냥 넘어가라.



극도로 절제된 슬라이드, King size 폰트, 강력한 인상



필요시 직접 시범을 보이는 효과적 프리젠테이션



효과적으로 이미지와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기술



스티브잡스 프리젠테이션의 특징

- 청중에게 맞는 메시지
-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
- 발표자를 뒤 따라오는 슬라이드
 - 청중을 위한 쇼
 - 최소한의 텍스트
 - 빈 화면
 - 킹 사이즈 폰트

Summary - Slide Tips

1. Keep it simple
2. Limit bullet points and text
3. Limit transitions and animation
4. Use high quality graphic
5. Have a visual theme but not MS PPT templates
6. Use appropriate charts, color, font
7. Use video and audio effectively
8. Spend time in the slide sorter view
9. Avoid clip art

Summary - Delivery Skill

1. Show your passion
2. Start strong
3. Keep it short
4. Move away from the podium
5. Use a remote-control device
6. Remember the "B" key
7. Make good eye contact
8. Keep the lights on
9. Use a TV for small groups
10. At all times: courteous, gracious, & professional

2015년 성인간호학회 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 교육 수월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진격**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일시 : 2015년 4월 10일(금) 9:00~18:00

장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

주최 : 성인간호학회

주제강연 2

Flipped learning



임진혁 교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015년 성인간호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5. 04. 10. (금) 09:00-16:00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권리관

MOOC, Flipped Learning과 미래교육

임진혁, Ph.D.

경영학부 교수, CTL센터장

유니스트

2015.4.10. (금)

UNIST

교수 소개

- 1971: 부산고등학교 졸업
- 1975: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 1981-83: 하와이대학교 MBA
- 1983-86: 네브라스카대학교 경영학 박사
- 1987-2008: 미국대학교 경영학교수
- 2008-2014: 유니스트 학술정보처장
- 2013-2014: 교육부 미래교육위원
- 2008-현재: 유니스트 경영학부 교수 겸
교수학습지원센터장

UNIST

© Dr. JH Im 2

목차

- ▣ 한국대학교육의 환경변화
- ▣ 새로운 교육실험
 - MOOC
 - Flipped Learning
- ▣ UNIST의 교육실험
- ▣ K-MOOC

© Dr. IM 3

한국일보

2015년 01월 19일 월요일 A13면 사회

대학 등록금 속속 동결... 고대·연대도 동참할 듯

정부 압박과 비판 여론 의식

서울 주요 대학들이 올해에도 등록금 동결 행렬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거센 데다 소폭 인상으로 인한 실익이 적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각 대학마다 진행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상당수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 숙명여대는 지난해에 이어 13일 열린 첫 번째 등심위에서 일찌감치 동결을 확정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등심위는 3~5차까지 이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올해는 사전에 실무진과 협의를 거쳐 동결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앞서 6일 주요 대학 중 가장 먼저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 학교 측이 2.4% 인상을, 학생 측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소폭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최근 4차례 등심위가 개최된 한양대는 ‘학부 동결, 대학원 1%대 인상’이라는 학교의 제안을 학생 측이 거부하면서 6차 등심위까지 얼굴을 맞댈 예정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리시는 정부의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대학들이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한 만큼 올해는 인상이 대세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컸으나 정부가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자제 분위기가 확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고, 향후여 교육부 장관도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총회에 참석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등록금 2.4% 인상안을 내놔 학생들의 반발을 샀던 이화여대도 14일 학교를 찾은 왕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돌연 등록금 동결로 입장을

정부학자금 누적대출 10조7천억...4년만에 3배로

연합뉴스 2015/02/06

1인당 대출액은 704만원...대학교육연구소 "청년채무자 우려"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장학재단에 '정부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누적 대출액이 2010년 말 3조7천억원에서 2014년 말 10조7천억원을 기록해 2.9배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일반상환 학자금은 대출액이 2010년 2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억원으로 1.8배로 증가했고 든든학자금(취업후 갚는 학자금)은 같은 기간 8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7배 수준으로 뛰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자는 152만명이고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010년 525만원에서 지난해 704만원으로 34% 늘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09년 2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학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 도입돼 이자율이 낮아지고 2010년 1학기에 든든학자금이 생기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졌지만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생 3명 중 1명은 상환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UNIST

© Dr. Im 5

사회 · 大入 정원 16만명 줄인다

교육 · 시험

만석배 기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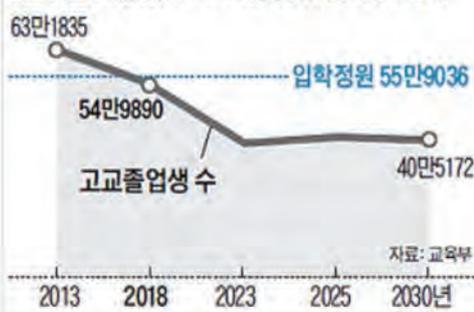
100자평(18)

입력 : 2013.10.18 03:12 | 수정 : 2013.10.18 10:38

이대로면 2018년엔 고졸생보다 많아... 교육부, 10년간 고강도 구조조정

상위권 대학까지 구조조정... 上·下·最下 세 그룹 나눠 추진 "잘하는 대학 놔둬야" 비판도

대학 입학정원과 고졸졸업생 숫자 단위: 명



2023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16만명 줄이는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 수와 정원을 더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56만명인 대입 정원을 2023년까지 40만명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7일 연세대에서 열린 '대학 구조조정 토론회'에서 "지난 정부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Dr. IM 6

대학붕괴 쓰나미? – 서거석 대교협 회장



등록금 동결/인사

연금대납 환수

기성회비 불법

입학생 감소

Dr. IM 7

창의적 인재에 대한 요구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협업/리더십

글로벌

글로벌 인재포럼 2014 환영 리셉션... 박대통령 "교육혁신 모델 만들자"

입력 2014-11-04 20:52:52 세계은행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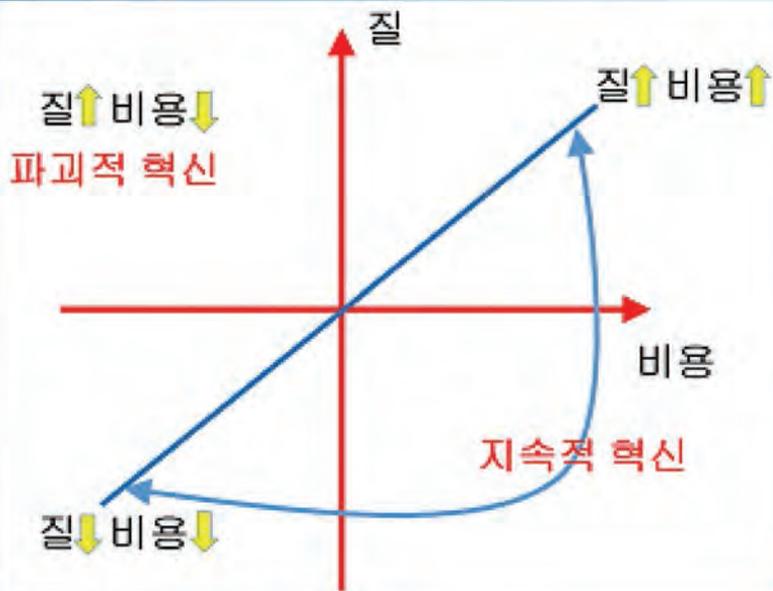
-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입시 위주 암기교육 시대변화 못 쫓아가... 창의력·열정 끌어내야"
-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유형의 교육혁신 모델이 정립돼야 한다"
- 미국대학 총장들: 교수들이 혁신을 하지 못하면 정치인, 언론 등에서 혁신을 강제할 것

쌍둥이 도전



- Sources:
 - 1. Tapio Varis, Global University in the Knowledge Society, UNESCO
 - 2. 2010 Horizon Report

지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UN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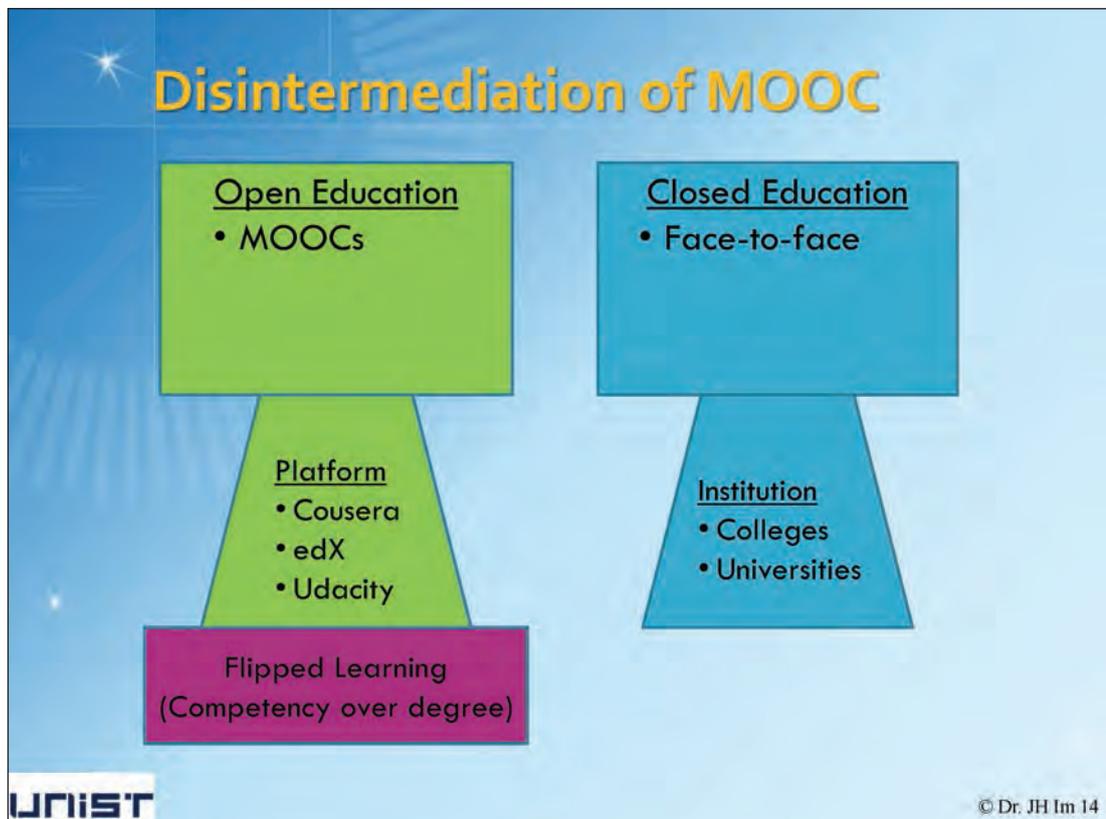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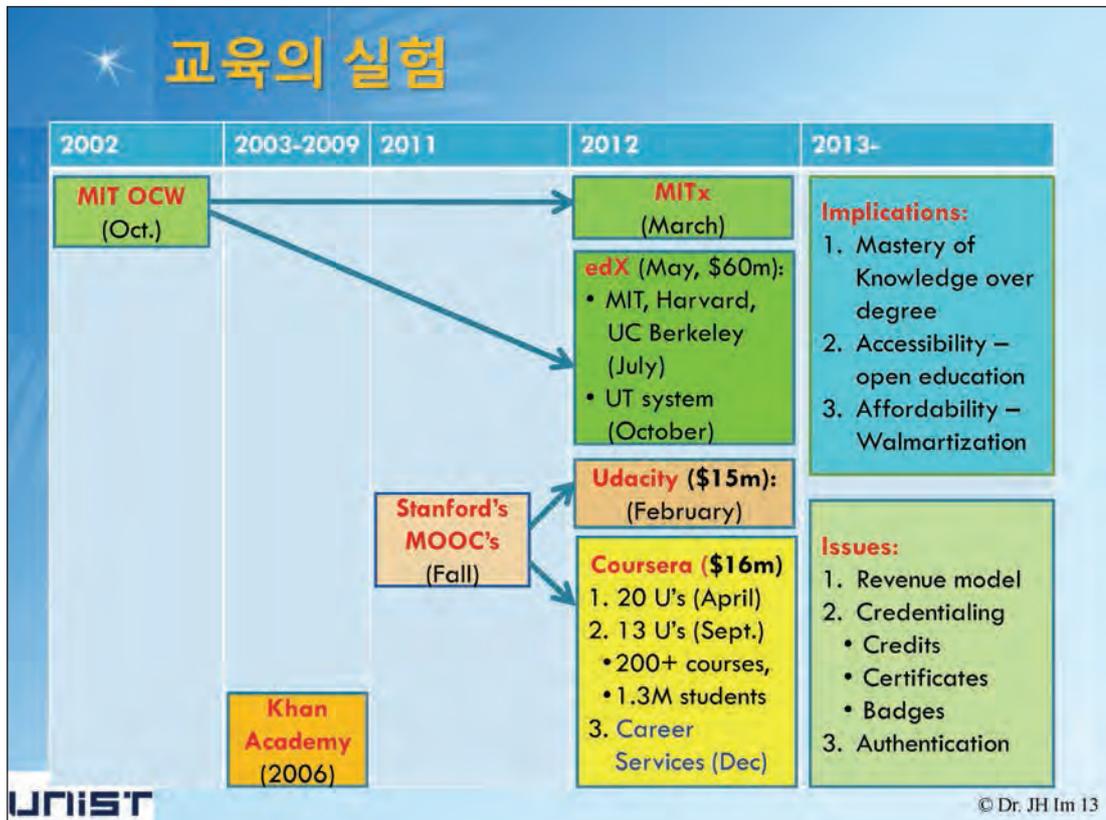
© Dr. IM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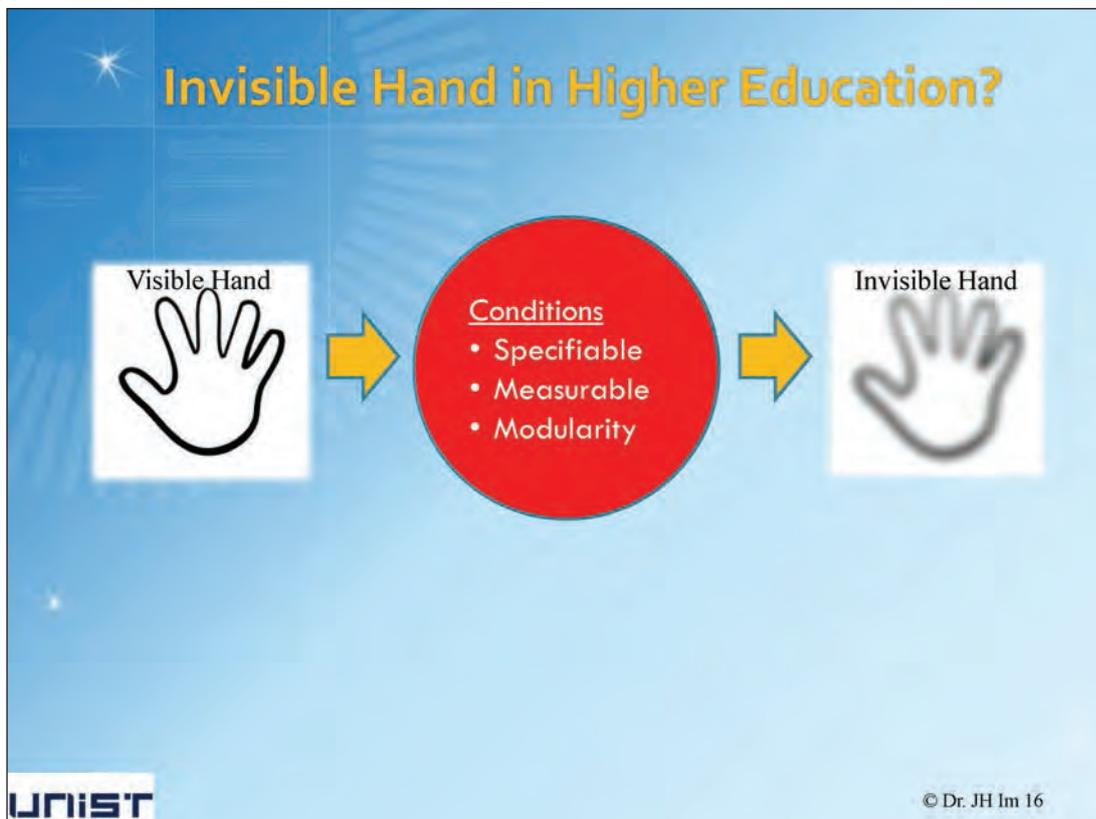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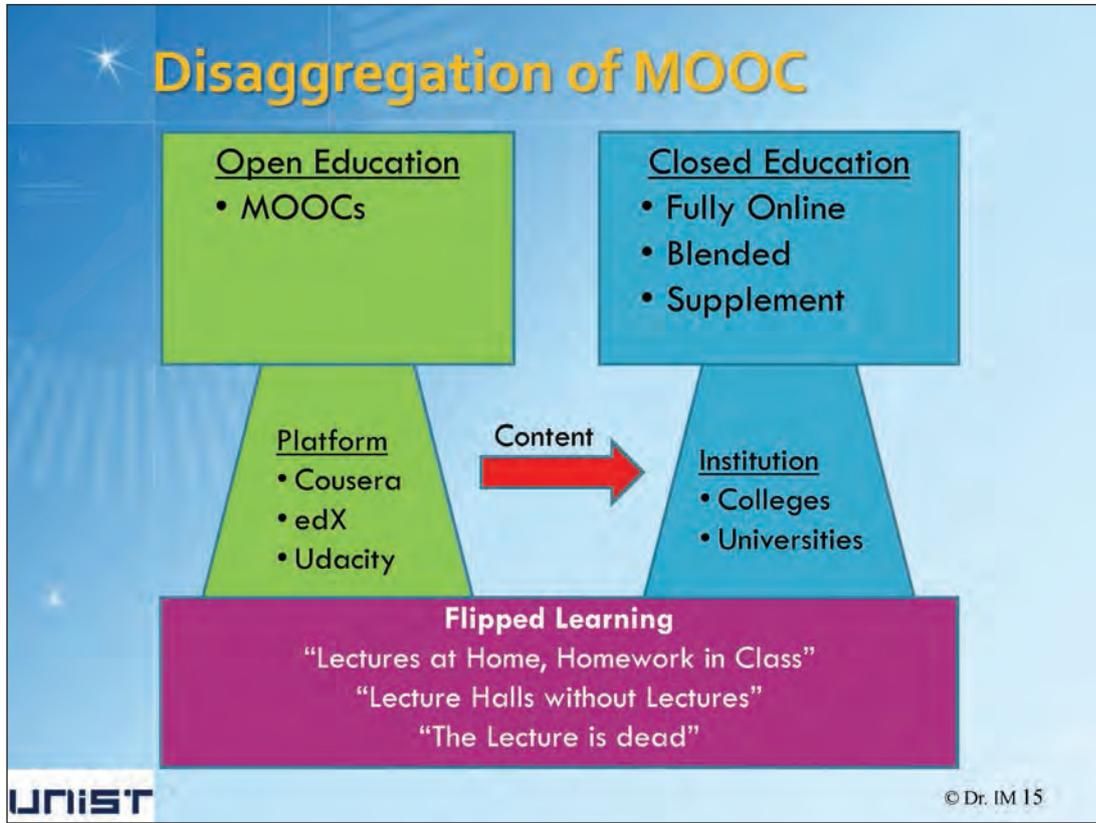
해결책?



UNIST

Dr. IM 12





Evolution of MOOCs

- ▣ Coursera:
 - Specialization
- ▣ edX:
 - BlendedX
- ▣ Udacity: *University of the Future*
 - Nanodegrees
 - OMS in CS with Georgia Tech in 2014

The screenshot shows the Coursera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for 'Courses', 'Specializations', and 'Institutions'. Below is a search bar labeled 'Search for a course'. On the left side, there are several filter categories with checkboxes and associated counts:

- On-Demand: 61 (highlighted with a yellow circle)
- Eligible For**
 - Verified Certificates: 255
 - Specialization: 113
- All Languages**
 - English: 819
 - Chinese (Simplified): 60
 - Spanish: 55
 - French: 33
 - Portuguese: 30
 - Russian: 25
 - Chinese (Traditional): 24
 - Chinese: 20
 - Italian: 8
 - Ukrainian: 5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list of courses:

- Courses**
 - University of Copenhagen: Søren Kierkegaard - Subjectivity, Irony and the Crisis of Modernity with Jon Stewart, PhD, Dr theol & phil
 - The University of Edinburgh & Universidad ORT Uruguay: Code Yourself! An Introduction to Programming with Areti Manataki & Inés Friss de Kereki
 -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Cryptography with Jonathan Katz

Specializations
Master a skill with a targeted sequence of courses

<p>Data Science Johns Hopkins University</p>	<p>Business Foundations The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p>	<p>Entrepreneurship: Launching an Innovative Busines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p>	<p>Digital Marketing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p>
---	---	---	--

UNIST © Dr. JH Im 19

Nanodegree programs built by

<p>Front-End Web Developer</p>		<p>Data Analyst</p>	<p>iOS Developer</p> <p>NEW</p>
	<p>Full-Stack Developer</p>	<p>Introduction to Programming</p>	

Udacity For Employers

Level up your team

Discover new talent

Employers use Udacity to train their own employees. [Udacity for Organizations](#) Hire our Nanodegree grads. [Let's talk!](#)

강의식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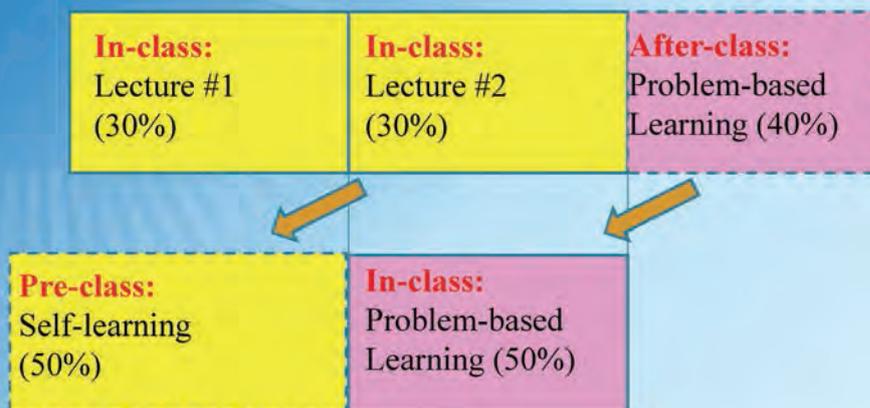
A lecture at the University of Bologna in Italy in the mid-fourteenth century. The lecturer reads from a text on the lectern. From Wikipedia.

UNIST

© Dr. IM 21

뒤집힌 학습 모델 (Flipped Learning)

Traditional model



Flipped learning in Blended Model

- **Lecture Halls without Lectures.**
- **Lectures at Home, Homework in Class.**

UNIST

© Dr. IM 22

MODEL IS EMBRACED DESPITE CHALLENGES

Biggest faculty needs for

FLIPPING:

 **75%**

Say the Time to create or format existing course content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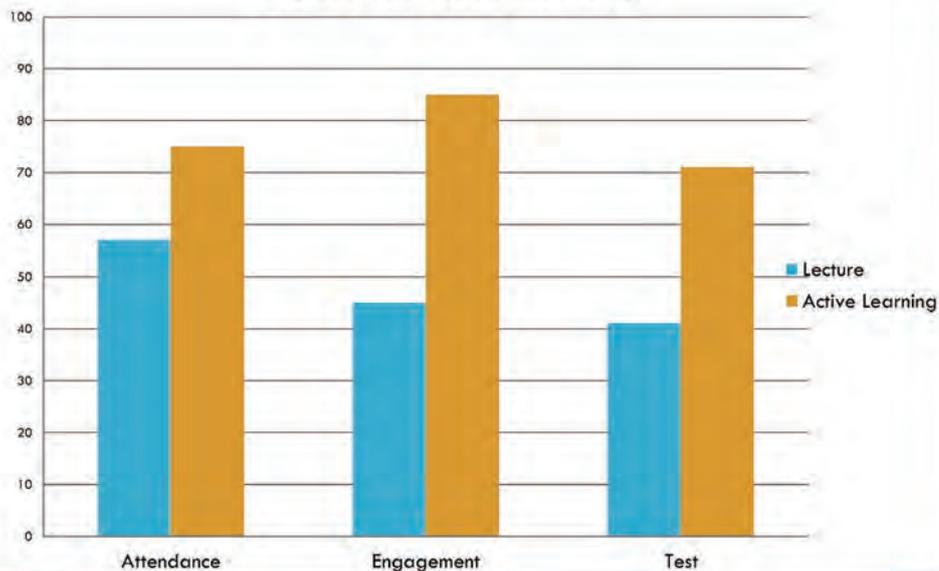
Say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to support the model

UNIST

Dr. IM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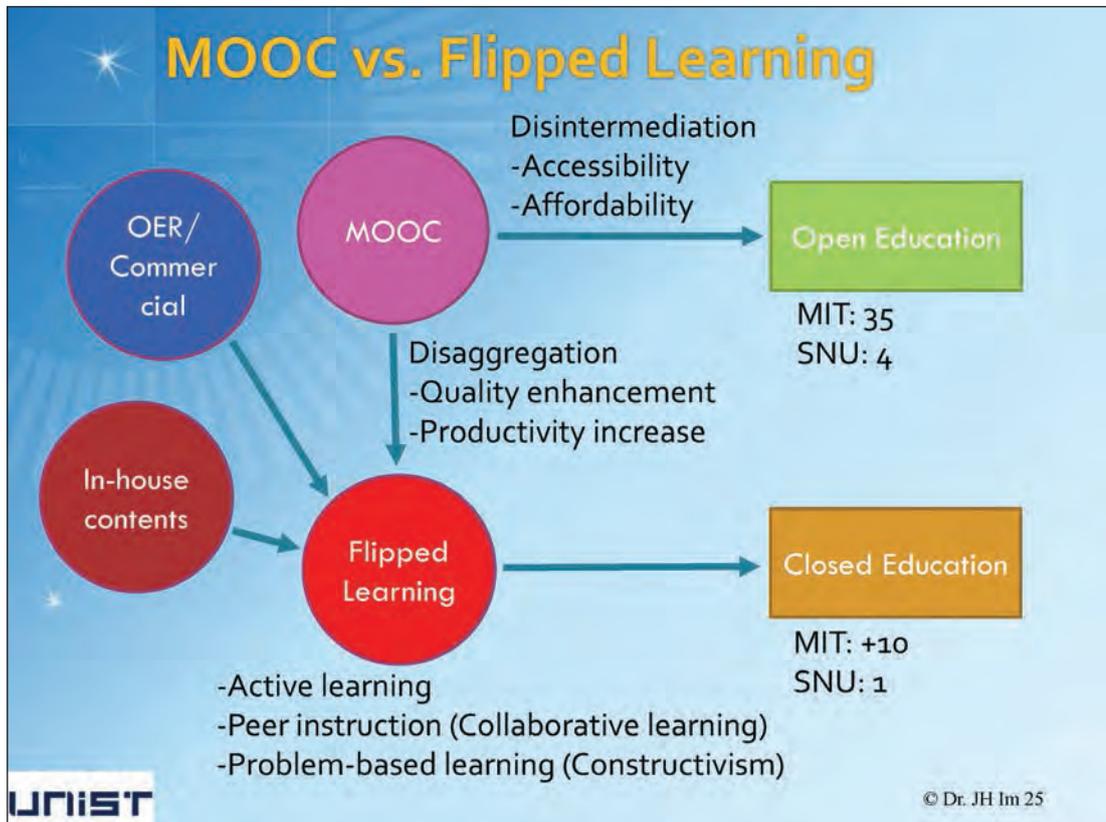
CWSEI's Experimentation

Lecture vs. Active Learning



UNIST

Dr. IM 24



edX vs. BlendedX with edX

edX Course Started - Aug 01, 2014 at 04:00 UTC

DemoX.1 Demo Course

[View Course](#) [Email Settings](#) [Unenroll](#)

edX Course Started - Jan 28, 2015 at 09:00 UTC

BlendedX Blended Learning with edX

[View Course](#) [Email Settings](#) [Unenroll](#)

© Dr. JH Im 26

San Jose U's Experiments

	MOOC	Flipped Learning
Course	Algebra	Circuitry
Model	MOOC	Flipped Learning
Content provider	Udacity	edX
Results	Fewer than a quarter of the students earned a passing grade.	Pass rate: 91% (55%, 59% in traditional sections)

유니스트의 교육 실험

- 67과목에 적용
- 기초과학과목들의 문제점
 - 대형강의 (200명)
 - 신입교수 (3-4명) 우선 담당
- 개혁안
 - 석좌교수 초빙, 담당 AI 채용
 - FLM 적용
- 기대효과
 - 학생: 교육질 향상
 - 교수: 생산성 향상 (200-400%)
 - 학교: 비용절감

Course Design Grid: Examples			
Learning Outcomes	Assessments	Learning Activities	
		Pre-class	In-class
<p>Students will gain knowledge about scientific research methods in marketing including:</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how to design and implement both qualitative research (in-depth interview, focus group, & observation) and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and experiment) 2. hands-on experience of formulating relevant marketing research questions and collecting data in appropriate manner 3. how to analyze collected data from various research methods 4. how to interpret and present results from the methods. 	<p>Research progress report will help students stay on track for each steps of marketing research process</p> <p>Feedback from instructor on online discussion will be given to guide corrections and further development of students' own marketing research</p> <p>Pitching & Final research presentations will assess students' understandings of research methods discussed and guided in class</p> <p>Short Answer Quiz will assess their understandings of critical concepts required to participate in in class discussions</p> <p>Exam. Designed to assess the learning outcome.</p>	<p>Understanding key concepts from text and additional video materials from external sources mainly from industries</p> <p>Group progress report</p> <p>Online discussion. Students will present revised thought paper of each step in own research after in-class discussion.</p>	<p>Mini lecture summarizes and stress critical concepts of the week</p> <p>Group presentations of research developments</p> <p>Full Class Discussions sharing feedback among instructor and research groups</p>
		<p>Resourc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textbook chapters <input checked="" type="checkbox"/> relevant articles <input type="checkbox"/> self-made videos <input checked="" type="checkbox"/> online videos <input type="checkbox"/> simulations <input type="checkbox"/> demonstrations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p>Connections with Pre-cla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Q&A on pre-class activities <input type="checkbox"/> quizzes implemented with BB <input type="checkbox"/> polls/surveys/clicker questions <input checked="" type="checkbox"/> filling in worksheets <input type="checkbox"/> peer-to-peer discussions <input type="checkbox"/> written reflections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p>Strategies</p> <p>Students will submit thought papers about each week's materials which insures completion of steps in own research.</p>	<p>Strategies</p>
		© Dr. IM 29	

UNIST e-Education

Home Course Community Content Collection

Week 7 Excel: Data to Information, PivotTables & PivotCharts

 **Readings**

Attached Files:  [Week7_PivotTables.pptx](#) (3.298 MB)

 **Audio PPT**

 **Video**

 **Hands-on Exercise**

Attached Files:  [ism20201_week7_data.xlsx](#) (57.2 KB)

 [ism20201_week7_instructions.docx](#) (49.071 KB)

© Dr. IM 30

Students currently at risk

16

[View students not at risk](#)

STUDENT ▲	MISSED DEADLINES	GRADES ALERT	ACTIVITY ALERT	ACCESS ALERT
박	●	●		●
김	●	●		●
김	●	●		●
김	●	●		●
박	●	●		●

No rules. Use defaults?

Students you are monitoring

김
 ★

Last Access 8 hour(s) ago

Activity ↓ 93% below average

Grade ↑ 3.10% above average

Missed Deadlines 1

Other information you are monito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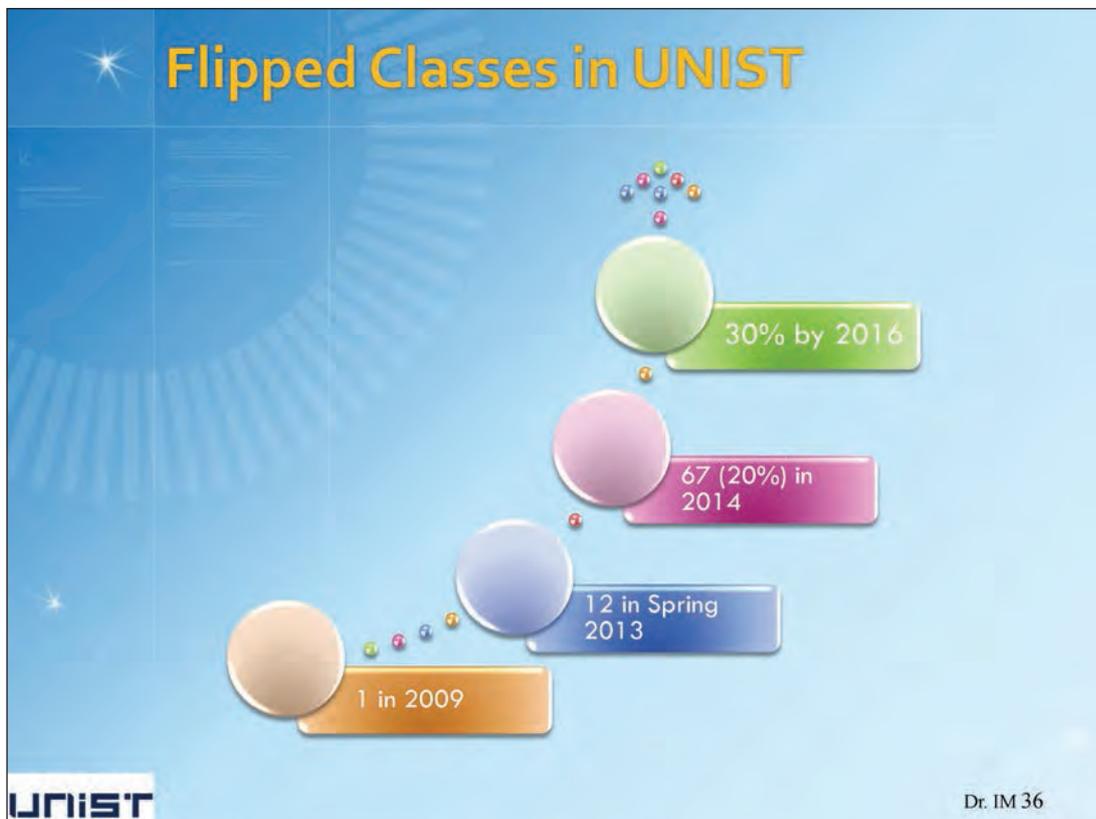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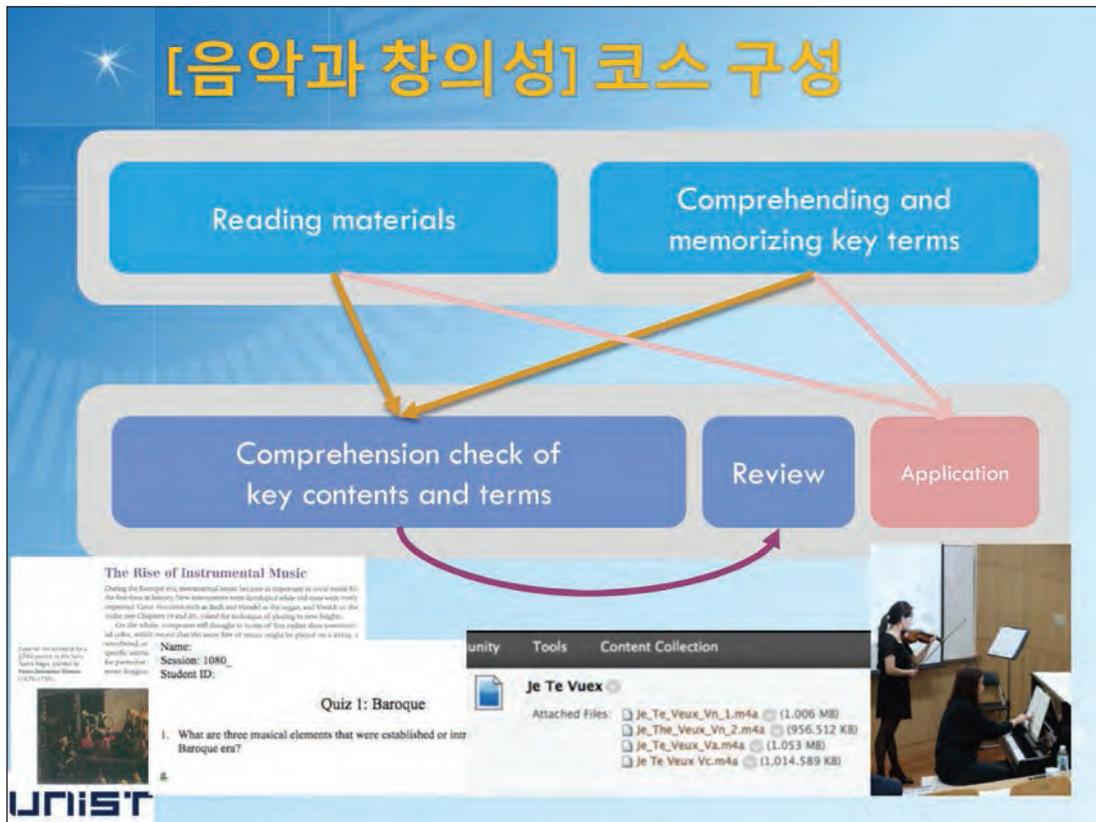
You are not monitoring any information

Track who's doing well in your course. © Dr. IM 31

Student Feedback

- 공부를 안할수가 없음
- 자연스럽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유도함
- 토론문화형성
- 자기주도적 학습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능력 향상
- 스스로 하려고 하므로 기억에 오래 남음
- online수업내용이 모두 offline에 적용된다는 점
- 혼자 공부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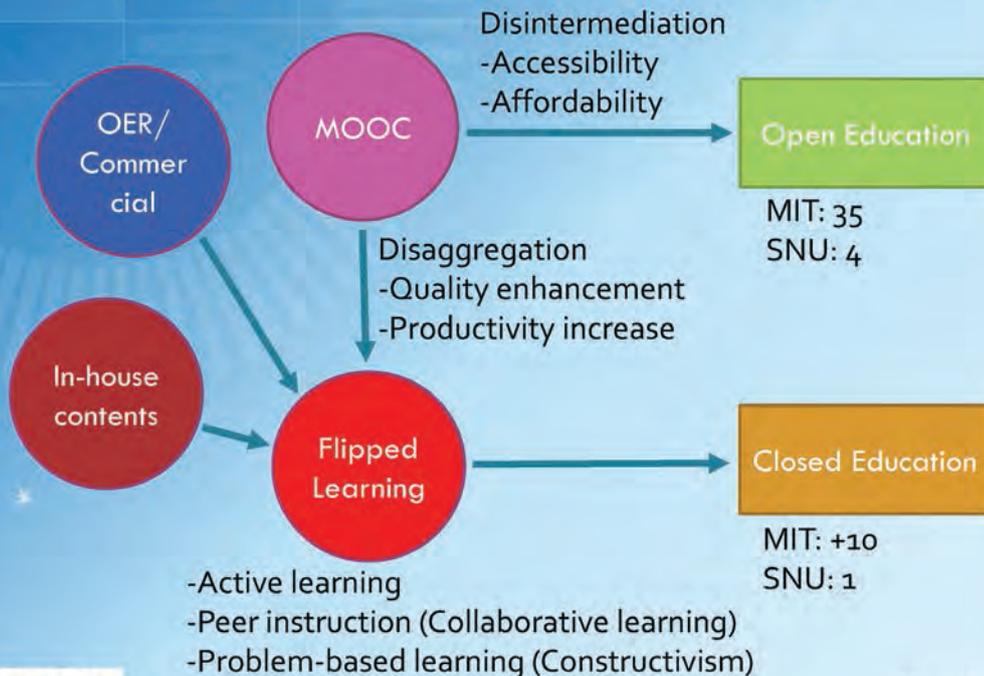
© Dr. IM 31



컨텐츠 개발

- 자체 개발
 - 비디오 녹화
 - PPT + 오디오 + 비디오
- OER (Open Educational Resources)
- 출판사
 - Pearson, McGraw Hill, John Wiley
- MOOC기반의 플립드 러닝

MOOC vs. Flipped Learning



MOOC기반의 플리드 러닝 실험



Take great **online courses** from the world's **best universities**

Choose a Topic Go

[See All Courses >](#)

Engineering Software as a Service

UC BerkeleyX | CS169.1x
April 18, 2014

CS169.1x teaches the fundamentals for engineering long-lasting software...

edX online courses starting soon



Next Generation Infrastructures - Part 1

DelftX | NGI101x
April 23, 2014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HarvardX | CS50x
anytime, self-paced



edX Demo

edX | edXDEMO101
anytime, self-pa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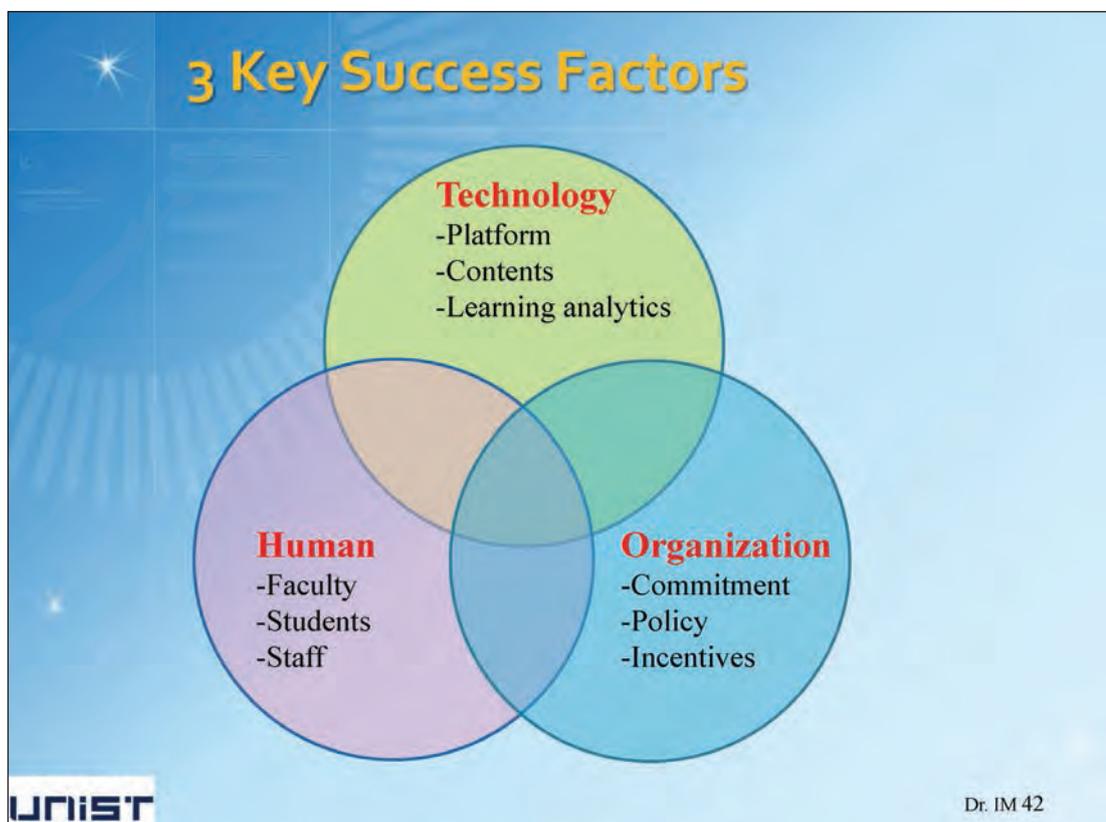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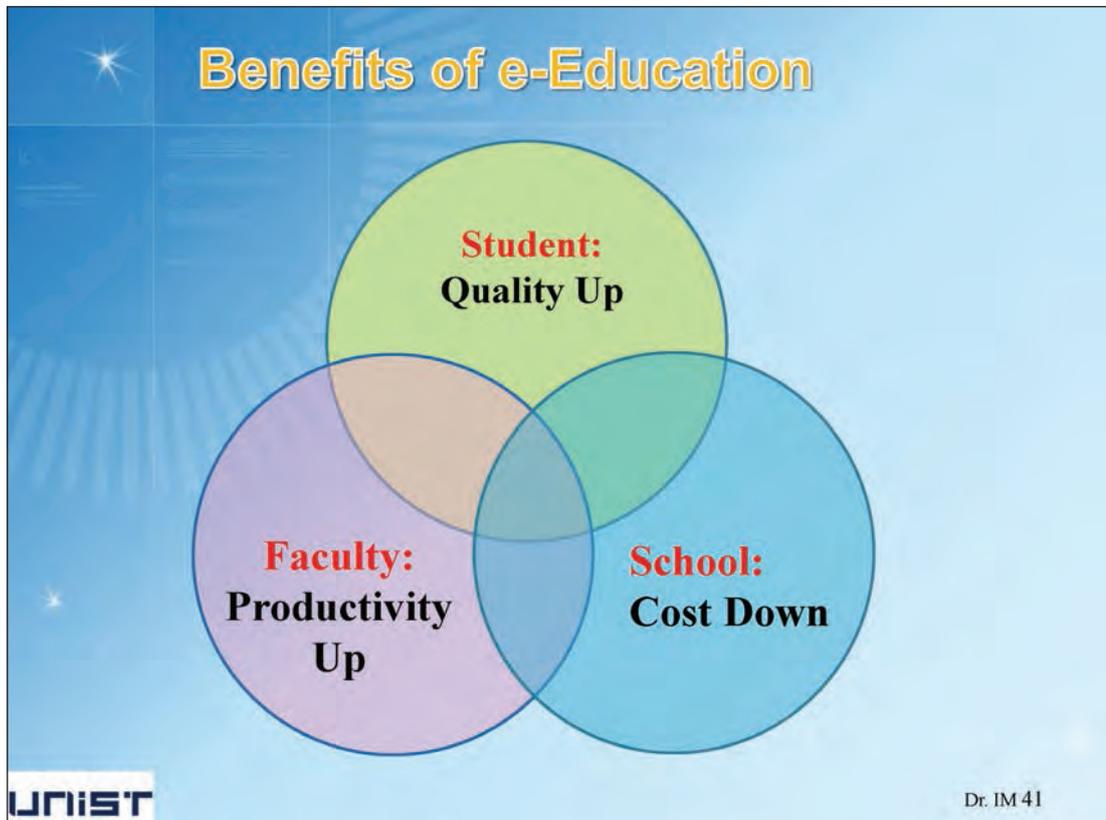

© Dr. IM 39

Courseware Course Info Discussion Wiki Open Ended Panel Progress

Course Progress for Student 'Jinhim' (imj@unist.ac.kr)

Category	Progress (%)
Ex-01	100%
Ex-02	0%
Ex-03	30%
Ex-AVG	60%
Exam	100%
Total	72%


© Dr. IM 40



서울대·KAIST 강의 ...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15.02.04 00:32 / 수정 2015.02.04 01:43

교육부 '한국형 무크' 하반기 시행
온라인으로 과제·시험·평가 토론
학점 인정 땀 대학교육 판 흔들 수도

글자크기 + -

댓글보기 14
Like Share 12
종합 12면 지면보기 >

한국형 무크(MOOC)

- 1 수강 신청 무크 사이트 접속해 신청
- 2 학습 동영상 강의 시청, 퀴즈 응시, 과제물 제출
- 3 평가 성적 산출(퀴즈+과제물+최종 테스트)
- 4 이수증 발급 성적 기준 넘으면 대학서 발급
- 5 이력 관리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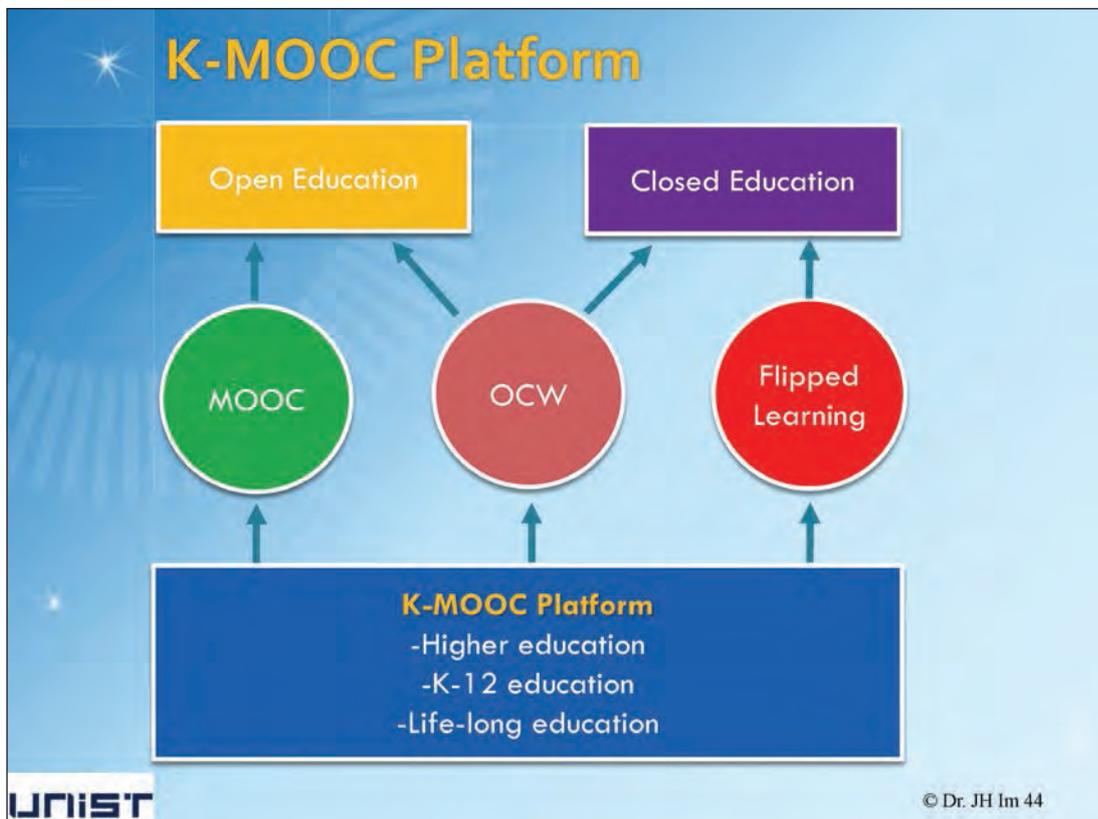
※ 학점 인정: 대학이 관련 학칙 마련하면 가능

세계 주요 무크 서비스

- 코세라(Coursera) 사용자 1000만 명
예일대·프린스턴대 등 총 114개 기관 839개 강좌
- 에덱스(edX) 사용자 300만 명
버클리대·보스턴대·서울대 등 64개 대학 409개 강좌

울산과학기술대(UNIST·유니스트) 학·석사 통합과정
에 재학 중인 김아람(24)씨는 지난해 1학기 빅데이터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김씨에게 통계 기법을 가르친
교수는 모교 교수가 아니다. 하버드대·매사추세츠공
대(MIT) 등이 운영 중인 에덱스(edX)란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에서 강의를 들은 것이다. 강의실에선 모
교 교수의 전공 강의를 이어졌다. 김씨는 "빅데이터
활용 기법은 온라인 강의로 미리 배우고, 수업은 토론
으로 하니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것도 많았다"고 말했
다.

UNIST © Dr. Im 43



SKY도 '슬픈 인문계' ... 취업 절반도 못했다

[중앙일보] 입력 2015.02.04 01:21 / 수정 2015.02.04 09:02

대학원·군입대 제외해도
3명 중 1명은 실업자 상태
"이공계 선호에 간판 안 통해"



글자크기 + -

댓글보기 21 Like Share 108

종합 1면 지면보기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한 강모(29)씨는 '백수' 2년차다. 대기업·공기업 등 22곳에 지원했지만 서류전형을 통과한 게 여섯 곳에 불과했다. 강씨는 "서울대 간판이 통하던 시절은 지나갔다"며 "토익 945점, 해외 교환학생, 대기업 인턴 등의 스펙도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인문·사회계열을 졸업한 3745명 가운데 취업한 학생은 1701명(45.4%)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이들 대학의 인문·사회계열(상경대 제외)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대학원 진학자, 군 입대자,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한 1112명(29.6%)은 '무적(無籍)' 상태였다. SKY 인문·사회계열 졸업생 3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UNIST

© Dr. JH Im 45

"인문계라도 SW 등 실용지식 쌓으면 취업 길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15.02.04 01:07 / 수정 2015.02.04 09:02

인사담당자 조연과 취업생들 한번
기업 "즉시 전력 가능한 인재 필요"
학문 간 융합 제대로 되면 큰 도움
취준생 "실무 경험 인턴 기회 늘려야"

글자크기 + -

댓글보기 0 Like Share 13

종합 5면 지면보기 >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조언

"당장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즉시 전력'이 돼야 한다."
(O그룹 A씨)

"마구잡이로 쌓은 스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K그룹 B씨)

"다른 전공 분야 지식을 쌓으면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S그룹 C씨)

취업준비생들의 한번

"인턴도 취업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경험 쌓을 기회라도 달라." (이모씨)

"기업마다 스펙 하나씩만 요구해도 우린
수십 가지를 갖춰야 한다." (장모씨)

인문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대학구조 개편 카드를 빼들었다. 이공계 인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인문계 정원을 줄이는 등 수요·공급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째 대학구조 개편을 외쳤지만 성과는 미미하고, 실질적인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인문계 전공자들의 좌절감도 커지고 있다. 취업의 문턱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대기업 인사담당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각각 취업준비생이 준비해야 할 것과 기업·사회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UNIST

© Dr. JH Im 46

한국 교육에 대한 영향

- 교육비용 절감
- 교육기회 확대
- 학벌타파
- 학력위주교육 (Competency-based)
- 교육의 사회적 미스매치 축소
- 창의인재 양성
- *영어강의

UNIST

Dr. IM 47

Q&A



Thank You!

UNIST

Dr. IM 48

2015년 성인간호학회 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 교육 수월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진보**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일시 : 2015년 4월 10일(금) 9:00~18:00

장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

주최 : 성인간호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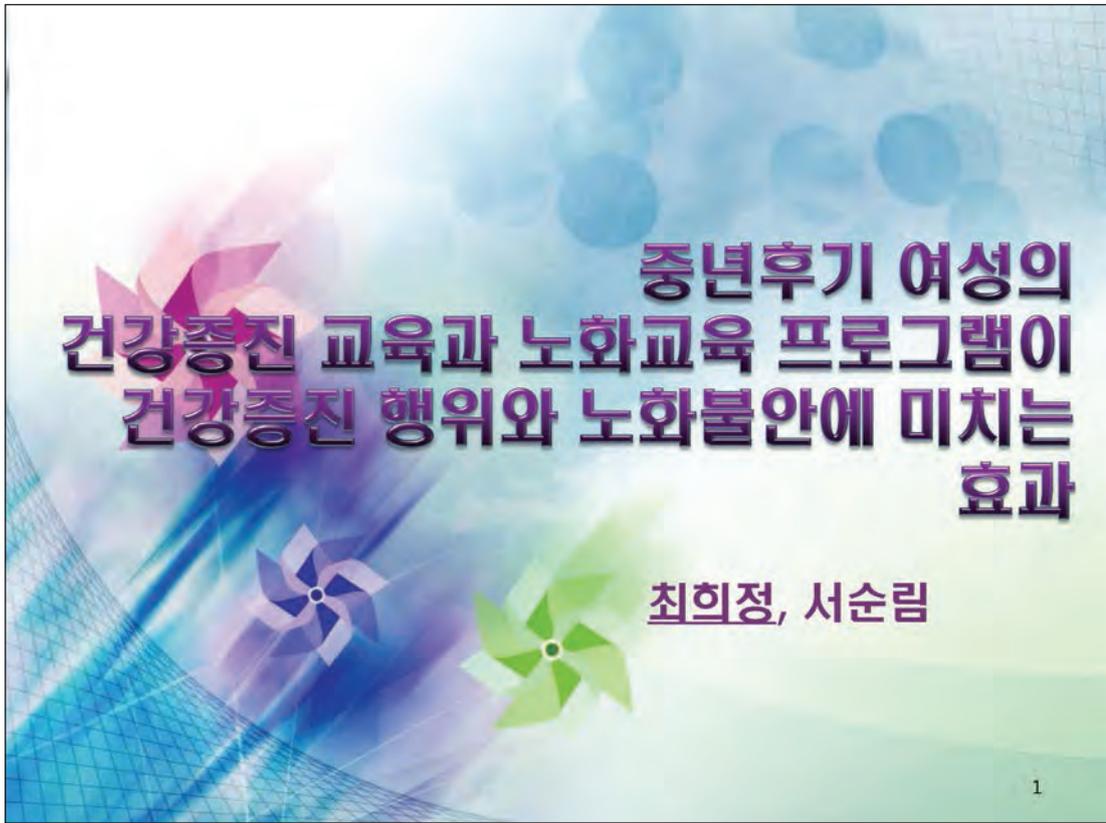
논문발표 1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이 건강증진 행위와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



최희정 교수

가야대학교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필요성

- 현대사회의 의학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살 고자 하며,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중 년기부터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부각
- 특히 중년기는 신체적 노화를 실감하고 사회적 변화를 경 험하며 각종 만성질환의 증가와 우울, 외로움, 실패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경험하는 시기

4

연구의 필요성

- 중년기 여성은 폐경으로 인한 신체·심리적 변화도 가중되므로 남성보다 삶의 질이 더 떨어짐
- 중년기 여성에게 신체·심리적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여 노년기에 질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

5

연구의 필요성

- 노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중년기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좌우되므로 노년을 준비하는 중년후기 성인에게 건강증진의 실천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치료보다 예방행위를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비용 효율적
- 중·노년기의 연속선상에서 삶의 질을 유지 증진을 위한 계속 간호수행이란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6

연구의 필요성

- 건강증진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증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가 간호능력을 향상시키므로 건강증진 행위를 위한 프로그램을 중년후기 여성에게 적용한다면 노후준비를 위해 스스로 자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줌

7

연구의 필요성

- 중년후기 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한 건강증진행위를 제공하기 위해 먼저 중년후기 여성의 특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노후준비를 수행하는 데 방해인자가 될 수 있는 요소의 하나로 노화불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노화불안(aging anxiety)이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89%가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

8

연구의 필요성

- 노화불안은 잘못된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성이 있어 노후를 앞둔 중년층에게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노후준비를 회피하게 함
- 노년기 특성 및 역할에 대한 이해, 노화과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와 건강유지 및 증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후불안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9

연구의 필요성

-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인지적 요소인 자기효능감은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연결 고리 역할
- 중년후기 여성들에게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중재를 제공한다면 노후준비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 건강증진을 실천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건강한 생활양식을 이행하기 위한 건강증진 교육은 건강증진 행위를 증가시키므로, 노년기를 앞둔 중년층에게는 노년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건강증진을 교육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

10

연구의 필요성

-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후기 여성에게 건강한 생활양식을 이행하여 건강증진을 시키는데 필요한 정보와 스트레칭 운동을 제공과 함께 자신의 노화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노화교육을 하는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Health Promotion and Aging Education Program)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함**

1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고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노화불안을 낮추기 위함**
 - 1)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 2)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 3)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 4)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 5)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12

연구가설

- 가설 1. 중년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하 실험군)이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이하 대조군)에 비해 **노화 불안 점수가 낮을 것이다.**
- 가설 2.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 가설 3.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 가설 4.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을 것이다.**
- 가설 5.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성공적 노화인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13

연구방법

14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 연구**

Table 1. Research Design

	Pre test	Treatment	Post test
Experimental Group	E ₁	X	E ₂
Control Group	C ₁		C ₂

E1 : Pre test of Experimental Group
 E2 : Post test of Experimental Group
 C1 : Pre test of Control Group
 C2 : Post test of Control Group
 X : Health promoting and Aging Education Program

15

연구방법

• 연구 대상자

- 대상자 모집 장소

- 중소기업이 많은 공업 도시이고 사회적 환경이 유사하며, 지역적으로 가깝게 위치해 있는 **중소 도시 K시와 Y시를 선정**
-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는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두 도시에 소재한 여러 종합복지관에 전화를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시행을 허락한 K시와 Y시의 각 **종합복지관 두 곳 선정**

- 대상자 모집기간

- 2013년 8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사회복지사의 문자 메시지와 종합복지관의 게시판, 대상자 모집 포스터를 이용**

16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

- 대상자의 선정기준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를 수락한 자
- 55세 ~ 64세의 중년후기 여성
- 설문지의 응답이 가능한 자
- 중증질환이 없는 자
- 정신질환 및 장애가 없는 자
- 노화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자
- 목, 허리 디스크가 없고 프로그램에서 하는 전신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자

17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

- 대상자수

-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
- t-test에 필요한 효과크기 .80,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을 투입한 결과 한 집단 표본 수가 21명으로 총 42명이 필요
 - 본 연구의 효과크기는 레크레이션 병합 체조프로그램이 후기 여성노인의 체력, 우울, 인지기능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Choi와 Lee(2012)의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추정
- 연구 대상자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군당 35명을 목표하였고 실험군은 37명, 대조군은 36명 모집

18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

- 1기 프로그램

• 기간

-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

• 등록 인원

- 실험군 16명, 대조군 21명

- 프로그램 참석률 저조와 중간 탈락자 -> 실험군 6명, 대조군은 6명

• 1기 최종 대상자

- 실험군 10명 대조군은 16명으로 총 28명

19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

- 2기 프로그램

• 기간

- 12월부터 1월까지 진행

• 등록 인원

- 실험군 21명, 대조군 15명

- 프로그램 참석률 저조와 중간탈락자 -> 실험군 5명, 대조군 2명

• 2기 최종 대상자

- 실험군 16명, 대조군 13명으로 총 29명

• 최종 분석

- 실험군 26명, 대조군 31명 총 57명

20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

- 실험군의 탈락 이유

- 낮은 참여도 : 6명
- 건강이 좋지 않아 : 1명,
- 일을 하게 되어 : 2명
- 다른 일과 겹쳐서 : 2명

- 대조군의 탈락 이유

- 자식 집 방문 : 1명
- 일을 하게 되어 : 1명
-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 1명
- 연락이 되지 않아 : 2명

2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 경북대학교 병원 IRB(NO. 2013-07-039) 승인을 받아 시행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7일 ~ 2014년 1월 24일

• 윤리적 고려

- 프로그램 대상자 보호를 위해 본 연구자는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음
- 또한 수집된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음
- 교육의 평등성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실험군의 중재가 끝난 후 대조군에게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유인물과 전신 스트레칭 포스터를 제공하였음

22

연구방법

• 연구도구 –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

Session	Time	Content
1	30min	·Orientation ·Pre-test
2	75min	·What is Definition of Successful Aging? ·Group Discussion ·Stretching Exercise
3	75min	·Definition of Successful Aging (Focusing on Rowe and Kahn, Ryff) ·Important position and Influencing of Successful Aging (Focusing on Previous research) ·Stretching Exercise
4	75min	·Characteristics of Middle aged ·Development tasks of Middle aged ·Stretching Exercise
5	75min	·Characteristics of Old age ·Development tasks of Old age ·Correct knowledge about Old age (Quiz) ·Stretching Exercise

23

연구방법

• 연구도구 –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

6	75min	·Physical health care - Proper Diet, Weight Management ·Non-smoking, Moderation in drink ·Stretching Exercise
7	75min	·Physical Health Care - Regular check-up for Cancer prevention ·Stretching Exercise
8	75min	·Physical Health Care - The Prevention of Osteoporosis ·Stretching Exercise
9	130min	·'About Schmidt' (Watching Movies)
10	75min	·Mental Health Care - Depression Prevention ·Stretching Exercise
11	75min	·Mental Health Care - Dementia Prevention ·Stretching Exercise

연구방법

• 연구도구 -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

12	90min	·Senior Life Experience (Individual Experience)
13	75min	·Mental Health Care - Stress Prevention ·Stretching Exercise
14	75min	·Relationship - Effective Communication ·Stretching Exercise
15	75min	·Relationship - Effective Communication (Demonstration Practise) ·Stretching Exercise
16	60min	·Senior Living Plan ·Post-test

25

연구방법

• 연구도구 - 노화불안

- 노화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Lasher와 Faulkender (1993)가 개발한 Anxiety and Aging Scale (AAS)을 Suh와 Choi (2013)가 번역한 도구를 원저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음
-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4개의 하위영역이 있음
 - 1 요인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5문항), 2 요인은 심리적 불안정(5 문항), 3 요인은 외모에 대한 걱정(5문항), 4 요인은 상실의 두려움(5문항)
- 5점 척도 Likert scale(5: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음을 의미
- 가능한 점수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며, 2, 5, 6, 8, 14, 17번 문항은 역코딩화 하였음
-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2$ 였다.
-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음

26

연구방법

• 연구도구 - 노인에 대한 태도

- 노인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Han (2004)이 개발한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 척도로서 원저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음
-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서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 Likert scale (1: 가장 부정적-5: 가장 긍정적)로 응답하게 함
- 총점에서는 50-70점 사이의 점수가 독립적인 범위를 나타내며, 가능한 점수는 최저 20점(가장 긍정적)에 최고 100점(가장 부정적)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냄
- 3, 4, 6, 7, 11, 12, 15, 17, 19, 20번 문항은 역코딩화 하였음
-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는 1차에 노년에 대한 태도는 .78이었고, 2차에 노년에 대한 태도는 .83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음

27

연구방법

• 연구도구 - 자기효능감

-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lad Chen 등(2001)이 개발한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NGSE)도구로서, Suh와 Lee (2011)가 번역한 도구를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음
- 이 도구는 총 8문항으로서, 5점 척도 Likert scale (1: 거의 그렇지 않다-5: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게 함
- 가능한 점수범위는 8점에서 6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
-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7$ 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음

28

연구방법

• 연구도구 - 건강증진 행위

- Walker 등(1996)이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HPLP-II)를 Seo (2000)가 번역한 도구로서 원저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음
- 이 도구는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의 하위영역이 있음
 - 건강책임 8문항, 신체활동 8문항, 영양관리 9문항, 영적성장 9문항, 대인관계 8문항, 스트레스 관리 8문항
- 각 문항은 4점 척도 Likert scale (1: 전혀 안한다-4: 항상 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음
-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수행점수가 높음을 의미
- 가능한 점수범위는 50점-200점까지
- Seo (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음

29

연구방법

• 연구도구 - 성공적 노화 인식

- 성공적 노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Kim (2008)가 개발한 성공적 노후 척도를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음
- 이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 하위요인이 있음
 -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
- 가능한 점수범위는 31점에서 155점이며, 5점 척도 Likert scale (1: 전혀 그렇지 않다-5: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게 함
-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인식이 높음을 의미
-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90$ 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음

30

연구방법

• 연구 진행 절차



31

연구 방법

• 연구진행절차

- 1단계 :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

- 중년후기 여성을 위한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하여 **관련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
- 건강관리 및 증진에 관련된 교육은 우리나라의 Health Plan 2020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내용(금연, 신체활동, 절주, 영양, 암 예방, 건강 검진, 체중조절, 우울, 스트레스 관리)을 포함
- 노인체험은 본 연구자가 D시 ‘시니어체험관’ 을 사전 답사
- ‘About Schmidt’ 영화는 3명의 50대 후반 여성을 통한 사전 상영
- 간호학과 교수 2명의 자문을 통해 내용을 수정·보완

32

연구방법

• 연구진행절차

- 1단계 :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에 앞서 대상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쉽게 기억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제목을 ‘소·행·성(소중한 나, 행복한 노년, 성공적 노화)’로 명칭.
 - 제목의 출처 : 행복한 교육연구소
- 본 프로그램의 전신 스트레칭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작된 건강증진 스트레칭을 바탕으로 2명의 전문 운동처방사의 자문을 통해 교육 가능한 스트레칭 동작을 선정
- 저강도의 운동으로 전신스트레칭을 통한 근력회복
- 프로그램 진행 역시 전문 운동처방사를 통해 대상자에게 실시함

33

연구방법

• 연구진행절차

- 1단계 :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신 스트레칭 동작은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작한 건강증진 스트레칭 포스터를 산업안전공단의 사용 승인 후 원본을 받아 포스터를 제작하여 대상자에게 배부하여 집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함
- 집단교육 30분, 전신 스트레칭 45분으로 총 75분간
- 주 2회/8주간(총 16회기)으로 구성

34

연구방법

• 연구진행절차

- 2단계 : 연구보조원 훈련

- 본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간호과 1학년 학생 2명을 연구보조자로 선정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 연구가 시작되기 전 **두 차례 운동전문가를 만나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스트레칭 동작을 익히도록 하여 프로그램 진행 중 실험군의 스트레칭 동작을 교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함**
- 설문조사를 위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읽은 후 다시 연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설문지 단어와 문항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지 확인하여 두 연구 보조원의 차이가 없도록 함
-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돕기 위한 **다과준비, 유인을 나누어 주기, 스트레칭 동작 교정 돕기, 사전·사후 설문지 조사** 함

35

연구방법

• 연구진행절차

- 3단계 : 대상자 선정 및 사전 검사

- K시와 Y시의 2곳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문자 메시지와 종합복지관의 게시판, 대상자 모집 포스터의 홍보를 통하여 2013년 8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의도표집
- 55세부터 64세까지 중년후기 여성들로서 선정기준에 맞는 자를 선정
- 1인당 사전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30분 정도

36

연구방법

• 연구진행절차

- 4단계 : 실험 처치

- 두 곳 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진행
- 실시기간은 1기는 2013년 10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였고, 2기는 2013년 12월 3일부터 2014년 1월 24일까지로 시행
- 프로그램은 주 2회, 75분씩, 8주 동안, 총 16회기로 진행
 - 1 회기는 연구진행에 대한 안내와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의 자기소개를 하였으며, 사전 설문검사를 실시
 - 2 회기부터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 매 회기마다 먼저 교육을 30분간 하였으며, 그 후 운동을 45분간 진행
 - » 도입단계의 5분간은 그 회기의 교육 주제를 소개
 - » 전개단계의 20분간은 주제의 세부내용을 교육
 - » 정리단계의 5분간은 차시수업 예고와 출석 스티커 붙이기와 건강 서약서에 대한 내용을 상기시켜 재동기 부여

37

연구방법

• 연구진행절차

- 4단계 : 실험처치

- 전신 스트레칭 순서는 준비운동과 본 운동, 마무리 운동 순으로 진행
- 준비운동은 10분간 목 → 어깨 및 팔 → 몸통 → 골반 → 허리 및 등배 → 다리 → 몸통 휘둘리기 → 발목 순서로 가벼운 운동
- 마무리 운동은 5분간 큰 숨쉬기와 명상
- 매 회기 때마다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였고, 매일 건강일지를 확인하여 성실히 작성하는 대상자에게 스티커를 붙여 주어 일정한 수의 스티커가 모아지면 인센티브를 제공
- 개별교육으로 매일 건강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주 1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집에서 매일 운동을 하도록 격려

38

연구방법

• 연구진행절차

- 4단계 : 실험처치

- 대조군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노화관련 교육과 운동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프로그램 진행 동안 일주일에 1회 전화 상담을 하여 탈락을 방지
- 실험군의 프로그램 적용이 끝나는 시점에 프로그램에서 활용되었던 교육 유인물과 매일 기록할 수 있는 건강생활 일지, 노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노트와 건강증진 스트레칭 포스터를 제공

39

연구방법

• 연구진행절차

- 5 단계: 사후 검사

-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에 대상자별 주어진 고유번호를 확인한 후 연구변수에 대해 사후검사

40

연구방법

• 자료분석

-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분석을 위해 χ^2 와 t-test
- 실험군과 대조군의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Shapiro-Wilk test로 정규성 검증과 t-test
-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 가설검증을 위한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이 노화불안, 자기효능감, 노인에 대한 태도, 건강증진행위, 성공적 노화인식에서 집단 간 검증 Independent t-test

41

연구결과

42

연구 결과

•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 대상자의 연령, 결혼, 종교, 학력, 월수입, 경제상태, 건강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그룹은 동질한 것으로 검증됨($p > .05$).

43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n=26)	Control group (n=31)	χ^2 (p)
	n (%)	n (%)	
Age			
55-59	7 (26.9)	9 (29.0)	.03 (.985)
60-64	19 (73.1)	22 (71.0)	
Marital state			
married	22 (84.6)	22 (71.0)	1.51 (.471)
others (widowed, divorced)	4 (15.4)	9 (29.0)	
Religion			
Yes	19 (73.1)	27 (87.1)	5.67 (.684)
No	7 (26.9)	4 (12.9)	
Education			
≤elementary	5 (19.2)	6 (19.4)	1.12 (.980)
middle	9 (34.6)	9 (29.0)	
high	10 (38.5)	14 (45.2)	
≥college	2 (7.7)	2 (6.5)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100	4 (15.4)	5 (16.1)	1.76 (.988)
100-250	9 (34.6)	8 (25.8)	
250-400	8 (30.8)	8 (25.8)	
400-550	3 (11.5)	6 (19.4)	
≥550	2 (7.7)	4 (12.9)	
Economic status			
poor	4 (15.4)	4 (12.9)	4.19 (.651)
moderate	18 (69.2)	20 (64.5)	
good	4 (15.4)	7 (22.6)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5 (19.2)	5 (16.1)	3.40 (.07) 44
moderate	13 (50.0)	17 (54.8)	
good	8 (30.8)	9 (29.0)	

연구결과

•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 실험군과 대조군의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성공적 노화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검증됨($p>.05$).

Variables	Experimental group(n=26)	Control group(n=31)	t (p)
	M(SD)	M(SD)	
Aging Anxiety	57.50 (7.732)	55.32 (9.257)	.952 (.345)
Attitude toward Older Adult	64.54 (9.977)	63.61 (8.682)	.508 (.614)
Self-efficacy	26.69 (4.550)	25.32 (5.839)	.973 (.335)
Health Promoting Behavior	103.46 (6.048)	99.71 (9.396)	1.753 (.085)
Successful Aging	116.50 (12.577)	114.13 (14.247)	.660 (.512)

45

연구결과

• 가설검증

- 가설 1.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노화불안 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499, p=.620$) 가설 1은 기각.
 - 노화불안에 대한 점수가 실험군은 54.04점, 대조군은 55.26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노화불안은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Characteristics	Groups	Pre-test	Post-test	Mean Difference	t (p)
		M ± SD	M ± SD	M ± SD	
Aging anxiety	Exp.	57.50 ± 7.73	54.04 ± 9.04	-3.46 ± 9.26	-.50 (.619)
	Cont.	55.32 ± 9.26	55.26 ± 9.30	-.07 ± .36	

46

연구결과

• 가설검증

- 가설 2.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0.18, p=.986$) 가설 2는 기각.

-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점수가 실험군은 64.88점, 대조군은 64.58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약간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Characteristics	Groups	Pre-test	Post-test	Mean Difference	t (p)
		M ± SD	M ± SD	M ± SD	
Attitude toward elderly	Exp.	64.54 ± 9.98	64.88 ± 10.23	.35 ± 10.71	-.02 (.986)
	Cont.	63.61 ± 8.69	64.58 ± 8.20	.97 ± 5.34	

연구결과

• 가설검증

- 가설 3.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아($t=2.970, p=.004$) 가설 3은 채택.

- 자기효능감에 대한 점수가 실험군은 29.08점, 대조군은 24.94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음

Characteristics	Groups	Pre-test	Post-test	Mean Difference	t (p)
		M ± SD	M ± SD	M ± SD	
Self-efficacy	Exp.	26.69 ± 4.55	29.08 ± 5.18	2.39 ± 4.79	2.97 (.004)
	Cont.	25.32 ± 5.84	24.94 ± 5.29	-.39 ± 1.37	

연구결과

• 가설검증

- 가설 4. '중년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t=5.657, p<.001$) 가설 4는 채택.

-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점수가 실험군은 116.50점, 대조군은 100.23 점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건강증진행위가 유의하게 높았다.

Characteristics	Groups	Pre-test	Post-test	Mean Difference	t (p)
		M ± SD	M ± SD	M ± SD	
Health promoting behavior	Exp.	103.46 ± 6.05	116.50 ± 12.58	13.04 ± 12.88	5.66 (.000)
	Cont.	99.71 ± 9.40	100.23 ± 9.10	.52 ± 2.11	

49

연구결과

• 가설검증

- 가설 5.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성공적 노화 인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아 ($t=2.308, p=.025$) 가설 5는 채택.

-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한 점수가 실험군은 122.88점, 대조군은 114.23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성공적 노화인식이 유의하게 높았음

Characteristics	Groups	pre-test	post-test	Mean Difference	t (p)
		M (SD)	M (SD)	M (SD)	
Successful Aging	Exp.	116.50 (12.577)	122.88 (14.069)	6.385 (10.460)	2.308 (.025)
	Cont.	114.13 (14.247)	114.23 (14.137)	-.097 (.534)	

결론 및 제언

51

결론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 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은 **중년여성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 건강유지·증진을 높이고 건강한 노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간호중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봄**

52

제언

- **첫째**,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을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적용되어야 함을 제언함
- **둘째**, 노화불안을 낮추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된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반복 실시해 볼 것을 제언함

2015년 성인간호학회 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 교육 수월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진격**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일시 : 2015년 4월 10일(금) 9:00~18:00

장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

주최 : 성인간호학회

논문발표 2

방사성 옥소(^{131}I)치료 예정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성과와의 관계



이현주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2015년 성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구두발표

방사성 옥소(¹³¹I) 치료 예정 환자의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성과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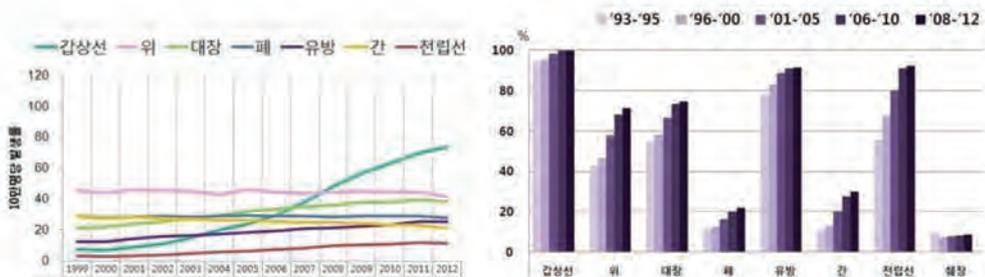
발표자: 이현주(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연구자: 이현주, 오의금, 이향규, 장연수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이현주의 석사학위논문임

연구의 필요성

- 갑상선암은 국내 암환자 발생률 1위를 차지하며, 지속적 증가
- 최근 5년 (2008-2012)상대생존율 100.1% 로 예후가 매우 좋음
- 따라서, 평생 관리가 필요!



국내 주요암 발생률 및 5년 상대생존율 추이(국가암정보센터, 2015)

연구의 필요성

-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방사성 옥소(^{131}I) 치료가 있음
- 요오드 제한식이 등의 옥소 치료 준비과정이 필요
- 익숙하지 않은 치료과정 중 다양하고 새로운 건강정보에 노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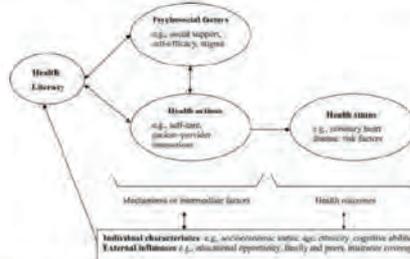


연구의 필요성

- 가정에서 환자 대부분 스스로 옥소 치료 준비 수행
- 건강정보 및 의료지침의 이해 및 이행 필수 : 효과적인 치료결과
- 건강정보 이해능력: 개인이 의료와 관련된 적절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정보와 서비스를 제대로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IOM, 2004)

연구의 필요성

-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Quinlan et al, 2013), 전립선암 환자 (Wilson et al, 2010), 고혈압 환자 (손연정&송은경, 2012) 의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 이행수준이 양의 상관관계
- 갑상선호르몬제 중단기간이 혈청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치에 영향 (배진호 외, 2004)
-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개인적/외부적 요인과 관련되며 이 요인들이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건강성으로 연결됨 (Ussher et al, 2010)



<Figure> Conceptual framework of mechanism linking health literacy to health outcomes (Ussher et al, 2010)

연구 목적

방사성 옥소 치료 예정 환자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 이행, 건강성과와의 관계 파악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 이행수준, 건강성과 파악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 이행수준, 건강성과의 차이 파악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 이행수준의 상관관계 파악

건강정보 이해능력 및 제 요인과 건강성과와의 관계 파악

연구 방법

• 윤리적 고려

- S 상급종합병원 IRB 통과(4-2014-0657)

• 자료수집

- 2014.10.6~11.28 연구자와 1인의 연구보조원 수행
- 설문조사 (응답시간 10~15분), EMR 기록 확인

• 자료분석

- 특성, 주요변수: 기술통계
-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 이행수준, 건강성과의 차이: t-test, ANOVA, X² 검정
-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 이행수준의 관계: Pearson 상관분석
- 건강정보 이해능력 및 제 요인과 건강성과와의 관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 결과

(N=116)

1.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

- ✓ 연령: 평균 45.47(±12.34)세
- ✓ 성별: 여성 81.9%
- ✓ 교육수준: 대졸이상 62.1%
- ✓ 직업유무: 무직 55.2%
- ✓ 소득수준: 500만원이상 36.2%
- ✓ 질병 이환력: 31.0%
- ✓ 복용약물: 평균 1.99개
- ✓ 건강정보: 사람 34.5%, 매체 65.5%
- ✓ 설명이해도: 매우 높음 47.4%

특성	항목	n	%	M±SD
나이	<45	56	48.3	45.47±12.34
	45≤	60	51.7	
성별	여성	95	81.9	
	남성	21	18.1	
교육수준	고졸 이하	44	37.9	
	대졸 이상	72	62.1	
직업	있음	52	44.8	
	없음	64	55.2	
월소득	<200	23	19.8	
	200-499	51	44.0	
	500≤	42	36.2	
질병 이환	있음	36	31.0	
	없음	80	69.0	
복용약물 개수	<2	60	51.7	1.99±1.48
	2≤	56	48.3	
건강정보 이용경로	사람	40	34.5	
	매체	76	65.5	
의르친의 설명이해도	매우 잘 이해함	55	47.4	
	잘 이해함	44	37.9	
	이해 못함	17	14.7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n=112)	매우 관심있음	46	39.7	
	관심있음	66	56.9	

연구 결과

2-1. 건강정보 이해능력

(N=116)

문항	M±SD	정답율
식전 복용하는 약물의 복용시간 계산		80.2
3일마다 복용하는 약물의 복용날짜 계산		75.9
약물의 유효기간 확인		62.9
4회/일 복용하는 약물의 복용시간계산		40.5
갑상선기능저하증상 확인		38.8
식전 약 복용 잊은 경우 복용시간 계산		37.9
방사성 옥소 치료 기준 갑상선 자극호르몬 수치		31.0
수리영역 합계(총 7문항)	3.67±1.80	52.4
방사성 옥소 치료 후 타인과의 유지 거리		93.1
방사성 옥소 치료 후 화장실 사용 후 처리		92.2
방사성 옥소 치료 후 교통수단 이용선택		91.4
약물 보관방법		81.0
진료가능시간 확인		44.0
독해영역 합계(총 5문항)	4.04±1.03	80.9
전체문항 정답율		64.3
전체문항 합계(총 12문항)	7.72±2.41	

연구 결과

2-2. 자가간호 이행수준

(N=116)

변수	M±SD
식이	3.74±0.27
추후관리	3.63±0.46
투약	3.62±0.49
증상관리	3.06±0.61
총 평균점수	3.53±0.29

2-3. 건강성과

(N=116)

변수	항목	n	%
혈청 갑상선호르몬 수치	<30	40	34.5
	30≤	76	65.5

연구 결과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 이행수준, 건강성과

(N=116)

특성	항목	n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 이행수준		건강성과		
			M±SD	t(p)	M±SD	t(p)	<30	30≤	χ²(p)
나이	<45	56	8.73±1.91	4.83 (<.001)	3.54±0.30	.08 (.934)	20(35.7)	36(64.3)	.07 (.787)
	45≤	60	6.77±2.45		3.54±0.27		20(33.3)	40(66.7)	
교육수준	고졸 이하	44	5.80±2.17	-8.56 (<.001)	3.59±0.29	1.74 (.085)	13(29.5)	31(70.5)	.77 (.382)
	대졸 이상	72	8.89±1.69		3.49±0.28		27(37.5)	45(62.5)	
직업	있음	52	8.29±2.19	1.28 (.020)	3.55±0.28	-1.74 (.083)	14(26.9)	38(59.4)	1.82 (.178)
	없음	64	7.25±2.48		3.51±0.28		26(40.6)	38(73.1)	
월 소득(만원)	<200 ^a	23	5.78±2.24		3.48±0.29		11(47.8)	12(52.2)	
	200-499 ^b	51	7.98±2.30	11.43 (<.001) (a<b,c)	3.54±0.28	3.88 (.041)	14(27.5)	37(72.5)	2.96 (.228)
	500≤ ^c	42	8.45±2.10		3.60±0.30		15(35.7)	27(64.3)	
질병 이환	있음	36	6.86±2.55	2.83 (.010)	3.61±0.26	-2.06 (.043)	11(30.6)	25(69.4)	.36 (.551)
	없음	80	8.10±2.25		3.50±0.29		29(36.2)	51(63.8)	
복용약물 개수	<2	60	8.37±2.29	3.18 (.002)	3.44±0.28	-3.81 (<.001)	23(38.3)	37(61.7)	.60 (.479)
	2일	56	7.02±2.35		3.63±0.26		17(30.4)	39(69.6)	
건강정보 이용경로	사람	40	6.85±2.59	-2.90 (.005)	3.65±0.26	3.30 (.001)	13(32.5)	27(67.5)	4.09 (.038)
	매체	76	8.17±2.18		3.47±0.28		39(51.3)	37(48.7)	
의료진의 설명 이해도	매우 잘 이해함 ^a	55	7.93±2.45		3.61±0.25	4.41 (.014)	18(32.7)	37(67.3)	
	잘 이해함 ^b	44	7.43±2.37	.52 (.598)	3.47±0.29		18(40.9)	26(59.1)	1.78 (.181)
	이해 못함 ^c	17	7.76±2.41		3.43±0.30		4(23.5)	13(76.5)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n=112)	매우 관심있음	46	7.86±2.23	.32 (.748)	3.46±0.26	-3.59 (<.001)	13(34.8)	33(71.7)	1.48 (.224)
	관심있음	66	7.72±2.55		3.65±0.27		26(39.4)	40(60.6)	

a, b, c: post-Hoc Scheffe test

연구 결과

4.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 이행수준의 관련성

		r(p)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리영역	독해영역
자가간호 이행수준	투약	-.01(.855)	-.14(.134)
	증상관리	-.13(.079)	-.16(.097)
	식이	.01(.908)	-.10(.307)
	추후관리	-.01(.962)	.10(.292)
전체		-.08(.397)	

5. 건강성과 영향요인

변수	항목	OR	95% CI	P
건강정보 이해능력	낮음	1		.964
	높음	0.98	0.42-2.29	
자가간호 이행수준	낮음	1		.004
	높음	4.09	1.57-10.64	
건강정보 이용경로	매체	1		.003
	사람	2.04	1.37-1.81	

논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증진전략

건강정보 이해능력 평균
7.72(±2.41)점, 정답률 64.3%
약간 낮은 수준

표준화된 측정도구

자가간호 이행수준 평균
3.53(±0.29)점
비교적 높은 수준

자가간호 이행수준 ↑
건강정보 이용경로 
-> 건강성과 달성 ↑

환자 개인의 특성 파악 및 활용

주 건강정보 이용경로를 포함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보
유질환, 복용약물개수, 설명이해
도, 건강에 대한 관심

자가간호 이행 증진전략

저소득층 대상 저목소식이교육
건강세미나 개최
의료진-환자 의사소통 전략

논의

연구의 제한점

- 연구결과 일반화의 어려움
- 다양한 측면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 파악이 필요
- 건강정보 이해능력 측정도구 관련 어려움
- 자가간호 이행수준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추가 검증 필요

연구의 의의

- 간호실무의 영역 확대: 실무 간호사의 교육자로서의 역할 증진
- 대상자 중심의 간호실현: 환자별 맞춤 교육제공의 기초 자료
- 간호연구의 영역 확대
 - 국내 건강정보 이해능력 관련 연구 2000년대 이후 시작
 - 대상자의 자가간호 이행수준 측정 위한 표준화된 도구의 필요성 제시

결론 및 제언

결론

- 방사성 옥소 치료 예정 환자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파악 및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제언

- 실무 측면: 환자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효과적인 환자교육을 위한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 연구 측면: 언어적 건강정보 이해능력 및 교육 요구도 조사연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실험연구
깊이있는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되는지 확인 위한 질적연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5년 성인간호학회 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 교육 수월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진보**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일시 : 2015년 4월 10일(금) 9:00~18:00

장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

주최 : 성인간호학회

주제강연 3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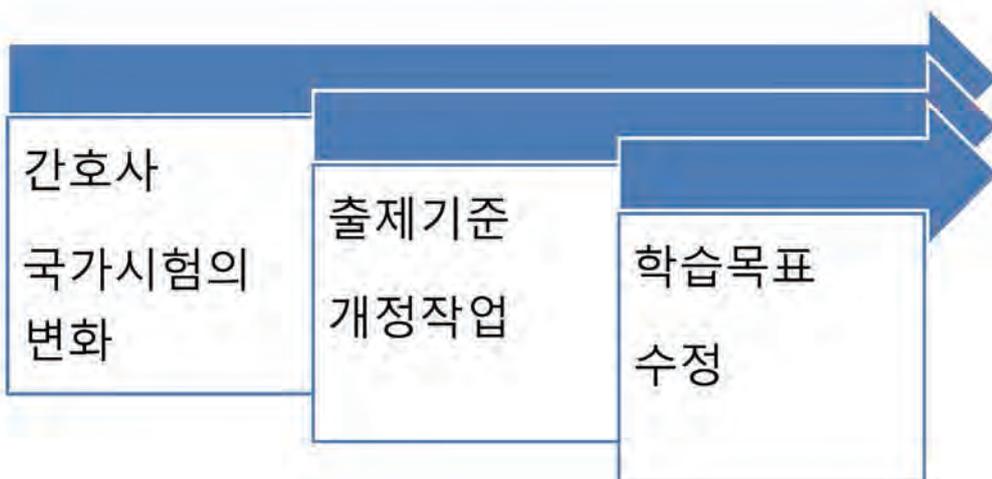
강지연 교육이사

동아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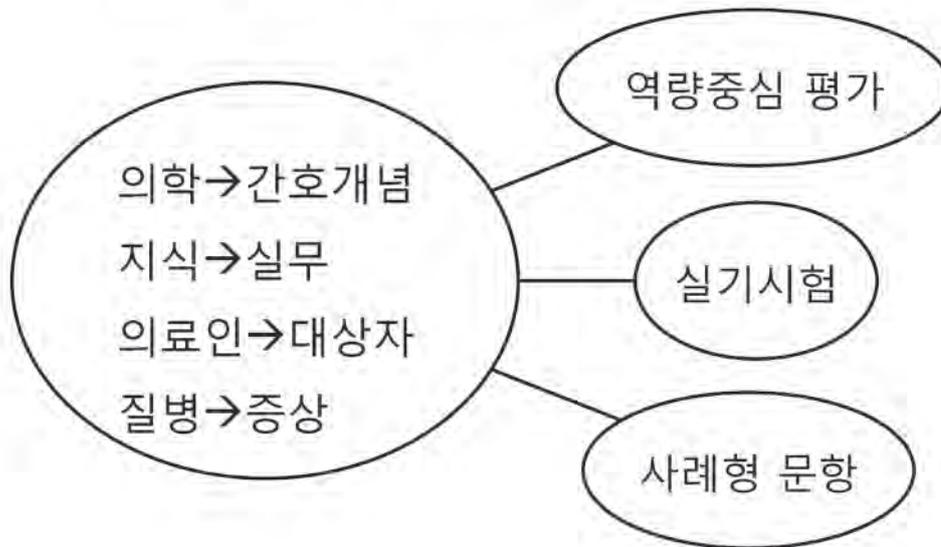
국가시험 출제기준 변화와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성인간호학회 교육위원장
강지연

배경



간호사 국가시험의 변화



출제기준 개정

- 2014년 4월 - 7월: 출제기준 개정작업
- 전체 간호분과: 시험문항 수 축소
- 성인간호학: 최근 추세에 맞추어 출제기준 및 문항개발 기준을 수정
- 분야와 영역을 개정
- 항목 축소: 900여개→74개
- 2016년 국시부터 적용

출제기준 영역 비교

개정 전	개정 후(2016)
총론	면역/ 신체손상, 안위변화
호흡기계	호흡기능장애
심맥관계	
혈액계	심혈관/ 혈액 장애
소화기계	섭취/ 흡수/ 대사 장애
신경계	인지/ 신경기능 장애
근골격계	활동/ 자기돌봄 장애
비뇨생식기계	체액불균형/ 배뇨장애
내분비계	조절기능 장애
감각계	감각기능 장애

성인간호학 학습목표의 변화

개정년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999년	12	135	2,885
2000년	10	77	1,748
2012년	11	25	408

2012 학습목표와 현 출제기준

학습목표 대분류	국가시험 출제기준
1. 성인간호의 기본개념 (6)	총론 (11)
8. 면역 (3)	
9. 암관리 (4)	
4. 산소화 (12)	호흡기계 (9)
5. 순환 (13)	심장계 (9)
	혈액맥관계 (6)
2. 소화와 영양 (10)	소화기계 (12)
3. 배설 (6)	비뇨생식기계 (7)
10. 생식기능 (2)	
7. 조절과 대사 (6)	내분비계 (6)
6. 운동 및 조정 (14)	신경계 (7)
	근골격계 (7)
11. 감각 및 피부 (4)	감각지각계 (4)
	피부계 (2)

2012 학습목표와 새 출제기준

학습목표 대분류(2012)	국가시험 출제기준 영역(2016)
1. 성인간호의 기본개념 (6)	면역/신체손상
8. 면역 (3)	
9. 암관리 (4)	
4. 산소화 (12)	호흡기능장애
5. 순환 (13)	심혈관/혈액 장애
2. 소화와 영양 (10)	섭취/흡수/대사 장애
3. 배설 (6)	체액불균형/배뇨장애
10. 생식기능 (2)	
6. 운동 및 조정 (14)	활동/자기돌봄 장애
	인지/신경기능 장애
7. 조절과 대사 (6)	조절기능 장애
11. 감각 및 피부 (4)	감각기능 장애

2015 학습목표 수정

- 워크숍(2월 부산), 10개조 50명
- 출제기준변경 홍보
- 학습목표의 대분류와 출제기준의 영역 (10개)
- 대분류별 학습목적
- 중분류 수정

학습목표와 출제기준 비교

학습목표(2012)	출제기준(2016)
대분류 (10)	분야 (4) : 영역 (10)
중분류 (25)	소영역 (37)
소분류 (408)	항목 (74)

대분류1: 면역/신체손상

학습목적

면역기능 및 신체 손상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를 파악하여 간호진단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간호중재를 수행한다.

중분류	
2012 중분류	2015 중분류
수술환자간호	1.1 수술환자간호
항상성유지간호	1.2 면역부족
피부문제간호	1.3 면역과다
화상환자간호	1.4 피부통합성 장애

대분류2: 안위변화

학습목적

대상자의 질병 궤도에 따라 나타나는 안위변화와 관련된 간호진단을 도출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안위증진 간호중재를 수행한다

중분류	
2012 중분류	2015 중분류
생애말기환자간호	2.1 통증
암환자간호	2.2 피로
항암요법간호	2.3 고통
청각환자간호	2.4 오심/구토
	2.5 수면/휴식 및 에너지 균형

대분류3: 섭취/흡수/대사 장애

학습목적

섭취 및 흡수/대사/배변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건강문제(증상 및 징후)와 간호요구를 파악하여 간호진단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간호중재를 수행한다.

중분류		
2012 중분류	2015 중분류	
소화기계간호	3.1 섭취부족	3.7 배변장애 3.8 영양부족 3.9 영양과다
영양간호	3.2 섭취과다	
	3.3 혈당조절장애	
	3.4 위장관장애	
	3.5 간담체장애	
	3.6 배변장애	

대분류4: 체액불균형/배뇨장애

학습목적

항상성 및 배뇨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를 파악하여 간호진단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간호중재를 수행한다.

중분류	
2012 중분류	2015 중분류
항상성유지간호	4.1 체액불균형 4.2 전해질불균형 4.3 배뇨장애
비뇨기계 간호	
전립선질환간호	

대분류5: 활동/자기돌봄 장애

학습목적

활동/자기돌봄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를 파악하여 간호진단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간호중재를 수행한다

중분류	
2012 중분류	2015 중분류
근골격계 간호	5.1 기동성 장애 5.2 자기간호 결핍

대분류6: 심혈관/혈액 장애

학습목적

심혈관/혈액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를 파악하여 간호진단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간호중재를 수행하고 평가한다.

중분류	
2012 중분류	2015 중분류
혈액계 심장계 혈관계 응급간호	6.1 활동지속성 장애 6.2 심장조직관류 장애 6.3 말초조직관류 장애

대분류7: 호흡기능장애

학습목적

호흡기능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를 파악하여 간호진단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간호중재를 수행한다..

중분류	
2012 중분류	2015 중분류
호흡기계 간호 응급간호	7.1 가스교환장애 7.2 비효율적 기도청결 7.3 비효율적 호흡양상

대분류8: 인지/신경기능 장애

학습목적

인지/신경기능 장애를 지닌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를 파악하여 간호진단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간호중재를 수행한다.

중분류	
2012 중분류	2015 중분류
두개내압상승	퇴행성질환 8.1 인지장애
신경계 염증성 질환	말초신경장애 8.2 지각신경장애
발작, 간질	척수손상 8.3 신경운동장애
뇌혈관질환	신생물질환 8.4 뇌조직관류장애 무의식환자

대분류9: 조절기능장애

학습목적

조절기능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를 파악하여 간호진단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간호중재를 수행한다.

중분류	
2012 중분류	2015 중분류
내분비계 간호	9.1 호르몬과다 9.2 호르몬부족

대분류10: 감각기능장애

학습목적

감각기능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를 파악하여 간호진단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간호중재를 수행한다.

중분류	
2012 중분류	2015 중분류
시각환자 간호 청각환자 간호 피부문제 간호 화상환자 간호	10.1 눈 장애 10.2 귀 장애

제거된 중분류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 검사전후간호
- 유방질환간호
- 감염관리

2차 학습목표 워크숍 계획

- 2015년 7월 서울
- 문제해결형(사례/ 자료제시형) 문항개발
- 대분류별 문항수 확정
- 학습목표의 소분류 정비(핵심강의주제)
- 출제기준의 항목 참고자료 작성

앞으로의 방향

- 간헐 문제집 개정
- 신규간호사 직무분석
- 통합형 교육
- 통합형 국가시험

2015년 성인간호학회 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 교육 수월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진격**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일시 : 2015년 4월 10일(금) 9:00~18:00

장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

주최 : 성인간호학회

포스터 발표

포스터 발표

페이지	발표자	공동저자	논문제목	소속
101p	이상준	하윤주, 서남숙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102p	서민정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질적 서술적 연구	연세대학교
104p	서민정	김상희, 김두리	임상간호사의 임상윤리 지원서비스 요구도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
105p	김희경		The Effect of Wisdo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Conservation of Older Adults	공주대학교
107p	강지숙	박미자	구강관리프로토콜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폐암환자의 구내염 및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108p	임경희	김윤경	조기진통 임부의 조산 발생에 대한 영향요인	계명대학교
110p	임경희	서미혜	유방암 생존자의 피로, 디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112p	양유리	오익금	병원 외래 이용 환자의 의료 커뮤니케이션 유형, 역량 및 만족도	연세대학교
113p	강희영	김호진	Development and Effects of an Informational Leaflet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for Better Interaction between Nurse and Client	조선대학교
114p	박영례	윤은자, 황윤영	대학생의 성윤리 가치관에 대한 주관성 연구	국립군산대학교
115p	유양숙	정미영, 조옥희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Ulcerative Colitis	가톨릭대학교
116p	조옥희	박혜서, 황경혜	Correlation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among freshman nursing students	공주대학교
117p	김민영		중환자실 소음도와 소음에 대한 환자의 반응	울산대학교
118p	전재희	김경희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개발 - 자가간호 지식 및 교육 요구도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119p	박영수	오익금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국내 문헌고찰	연세대학교
120p	송정미	오익금	간이식 수혜자의 사회적 지지, 치료지시이행, 건강관련 삶의 질	서울아산병원
122p	염은이	전해옥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among Male Nursing Students	청운대학교
123p	송효정		Urinary Incontinence and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for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Jeju	제주대학교
124p	이혜경	김희경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hronic Pain	중원대학교
125p	김영만	오익금	수술예정 환자의 마취지식과 불확실성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126p	강경아		Lipopolysaccharide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감국 추출물의 nitric oxide생성 억제효과	국립군산대학교
127p	이영주	이순희	성인의 생활습관, 우울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신한대학교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남숙¹, 이상준², 하윤주³

¹동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³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연구목적: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이러닝과 면대면 수업의 장점을 혼합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법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학년생을 대상으로 성인간호학 교과목에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하여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설계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연구 대상자는 N시 소재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2014년 1학기에 개설된 성인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간호학과 3학년 140명이며, 학기가 끝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자료분석은 SPSS 21.0 version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서술적 통계를 산출하였고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력은 평균 3.35점, 학습동기는 평균 3.04점, 학습만족도는 평균 3.60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동기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습만족도는 성별에서 여자가 4.02점으로 남자 3.5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24, p=0.02$). 자기주도학습력은 학습만족도($r=.25, p=.003$), 학습동기($r=.40,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2.1%(Adj. $R^2 = .221$) 이었고, 자기주도학습력은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beta = .409, t=4.84, p<.001$), 학습동기는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는 자기주도학습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동기는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간호학 전공교과목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요어(Key words): 블렌디드 러닝,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질적 서술적 연구

서민정¹

¹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교수

연구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화두는 환자가 배제된 채 의사-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환자, 가족, 의료진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가 대부분으로 의사결정 현장에서 상호역동을 고려한 연구가 없어 실제 임상현장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상호 역동을 반영하여 환자가 배제된 의사결정의 담론과 장애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병동 회진과 외래진료 현장에서의 상호 역동 관찰과 의사, 가족, 간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애말기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환자가 의사결정에 포함되지 못하는 장애 요인을 밝히기 위한 질적 서술적 연구(qualitative descriptive study)이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생애말기 의사결정은 환자의 활력징후가 심하게 나빠지는 경우에 심폐소생거부술(Do-not-resuscitate: DNR)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가 의료진의 입장에서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의사들 스스로도 환자가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명하기 보다는 치료적 과정의 한 부분으로 DNR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의학적인 결정을 가족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회진과 외래진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스스로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회진과 외래진료 후 환자, 가족들은 간호사에게 의사의 설명 내용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면서 의사결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가족은 대리결정에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으며, 환자 임종 이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서로 반목 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들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애말기 증상(통증, 불안, 섬망, 호흡곤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료진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주요어(Key words):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자율성, 질적 서술적 연구

결론: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환자가 배제되는 것에는 임종에 임박하여 진행되는 DNR 중심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환자는 자신의 자율성을 표현할 기회를 잃게 된다. 환자와 가족의 맥락을 고려하여 환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방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혼란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애말기 치료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적절한 논의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합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임상간호사의 임상윤리 지원서비스 요구도

김상희¹, 서민정², 김두리³

¹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²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교수,

³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연구목적: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의 간호사는 24시간 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스스로가 임상 현장에서 윤리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임상윤리 관련 이슈와 지원서비스 요구를 조사하여 추후 개발될 임상윤리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환자실, 병동, 응급실, 중앙내과 병동 간호사 17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임상간호사가 경험하는 임상 윤리관련 이슈는 다음의 5가지 주제로 - 1) 근거기반의 전문적인 돌봄 제공의 어려움, 2) 대상자의 존엄성 유지의 어려움, 3)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식부족, 4) 전문직으로의 자존감 상실 경험, 5)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윤리 협진 시스템과 지속적인 윤리교육의 필요- 도출되었다. 특히 응급실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언어폭력, 무례함 등으로 죄책감이나 모멸감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병동에서는 공통화된 프로토콜이 부족하여 일치된 간호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겪는 윤리적 딜레마를 호소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이 윤리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의사소통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장(場)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적절한 인력제공, 지속적인 윤리 교육 등의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론: 임상간호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임상윤리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간호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윤리적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를 반영한 지속적인 윤리 상담과 윤리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임상윤리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주요어(Key words): 임상 간호사, 임상 윤리, 포커스 그룹

The Effect of Wisdo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Conservation of Older Adults

Hee Kyu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whether or not the use of perception and wisdom as a key factor on health status can enhance health conservation for older adults, and whether or not older adults' wisdom as a cognitive factor can increase the extent of health conservation by displaying mediating effects, which was revealed in the research on factors influencing health conservation among older adults. Ultimately,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older adults' health conservation.

Methods: Research design is secondary analysis research. This study was used as the data of which the title of paper is health conservation in community-dwelling older Korean adults: association of pain, perceived health status, social networks, self-efficacy, and wisdom of Kim. It collected the data by using the questionnaire for the 154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ld or over who were visiting the outpatient clinic of senior specialized hospitals, health care centers and senior citizen centers in the first research.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health conservation of older adul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r=.649$, $p<.001$), and wisdom ($r=.750$, $p<.001$). The average score of perceived health status of older adults was 2.84 (0.72) with a possible range of 1 to 5; 2.84 (0.24) for wisdom with a possible range of 1 to 4; 2.65 (0.29) for health conservation with a possible range of 1 to 4. There was the mediating effect of wisdo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conservation. That is to say, the direct effect of perceived health status on the health conservation of elderly was $\beta = .649$. 0.281, the product of the effect of perceived health status on wisdom ($\beta = .494$) and the effect of wisdom on health conservation ($\beta = .568$), indicates the indirect effect of perceived health status on health conservation through

Key words: Aged, Health status, Health conservation, Wisdom

wisdom. Herein, β value (.369) of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hich was the independent variable for the direct effect, was smaller than the total effect β value of first phase (.649). Thus, there existed a mediating effect of wisdom.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erceived health status and wisdom need to be considered in developing programs to enhance health conservation for the elderly. Especially, nurses need to include wisdom in design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구강관리프로토콜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폐암환자의 구내염 및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

강지숙¹, 박미자²

¹원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원광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병동 수간호사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간호중재가 포함된 구강관리프로토콜 적용이 구내염과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암환자 간호중재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기관 내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고, 단일군 전후시차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폐암환자에게 4주 간격으로 사전조사 2회 실시한 후 구강관리프로토콜을 적용하였고, 적용 4주 후 사회조사를 1회 실시하였다. 측정은 구내염(OAG), 영양상태(PGSGA)와 신체적 지표로 체중, 혈색소, 혈청 총단백질 및 혈청 알부민 수치를 측정하였다. 구강간호프로토콜은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발하여 전문가 타당도를 거쳤으며, 구내염(OAG)점수에 따라 8점 이하에서는 양치질 4회와 1% 중조용액 가글링 4회, 9점이상에서는 양치질 4회와 0.15% 탄룡용액 가글링 4회 교육을 실시하고 구강관리 교육자료 제시와 시범교육을 포함하였다. 연구진행 중 탈락자를 제외한 총 29명이 대상자로 참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0.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첫 번째 사전조사의 OAG는 11.62 ± 2.82 , 두 번째 사전조사 12.03 ± 2.47 , 구강관리 프로토콜 적용 후 사후조사 10.83 ± 2.94 로 측정시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085$, $p=.022$). 대상자의 영양상태는 첫 번째 사전조사의 PGSGA 10.35 ± 3.38 , 두 번째 사전조사 10.13 ± 4.11 , 구강관리 프로토콜 적용 후 사후조사 8.69 ± 4.03 으로 측정시기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498$, $p=.003$). 대상자의 첫 번째 사전조사의 혈색소 수치는 $11.87 \pm 1.68\text{g/dL}$, 두 번째 사전조사 $11.30 \pm 1.82\text{g/dL}$, 구강관리 프로토콜 적용 후 사후조사 $11.27 \pm 1.66\text{g/dL}$ 으로 측정시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4.517$, $p=.015$), 대상자의 첫 번째 사전조사의 혈청 총단백질 수치는 $6.34 \pm 0.58\text{g/dL}$, 두 번째 사전조사 $6.01 \pm 0.54\text{g/dL}$, 구강관리 프로토콜 적용 후 사후조사 $6.09 \pm 0.58\text{g/dL}$ 으로 측정시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795$, $p=.012$).

결론: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중인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관리가 포함된 구강간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유용한 간호중재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Key words): 구강관리, 구내염, 영양상태, 폐암

조기진통 임부의 조산 발생에 대한 영향요인

김윤경¹, 임경희²

¹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간호사, ²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조기진통을 경험하고 있는 임부들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과 함께 조기진통 임부의 사회심리적 특성이 조산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기진통 임부의 조산 발생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D광역시 소재 K대학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 조기진통을 주진단으로 입원한 임신 20주에서 37주미만의 임부 12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수집기간은 2014년 6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상태불안은 Spielberger의 State Trait Anxiety Invention-Y형을 한덕웅 등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산전 스트레스는 안황란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는 Zimet et al.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의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도구를 전병제가 번안한 것을, 성격은 Everly & Girdano의 Type A, Type B 감별 자가 평가 척도를 장현갑과 강성군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est, t-test,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조기진통 임부 전체 129명 중 37주미만 분만을 한 경우는 78명(60.5%), 37주 이상 분만을 한 경우는 51명(39.5%)로 나타났다. 조기진통 임부의 조산 발생의 영향요인으로 낮은 학력, 평소 변비 또는 설사의 배변상태, 임신 28주 이전에 조기진통을 진단받은 경우, 다태임신과 더불어 조기진통 임부의 높은 상태불안, 높은 산전 스트레스, 낮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조기진통 임부의 조산 발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조산 발생 위험도는 대학원졸 이상에 비해 대졸미만이 13.73배, 평소 배변상태가 정상인 경우에 비해 변비나 설사인 경우가 4.42배 높게 나타났으며, 조기진통을 처음 진단받은 시점이 28주 미만인 경우가 28주 이상인 경우에 비해 4.67배, 다태임신인 경우가 단태임신인 경우에 비해 24.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태불안이 높을수록, 산전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주요어(Key words): 조기진통, 조산, 임부

각각 1.10배(95% C.I: 1.00-1.20), 1.06배(95% C.I: 1.01-1.12) 조산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높을수록 조산 발생의 위험은 0.87배(95% C.I: 0.78-0.98)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상에서와 같이 조기진통 임부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과 더불어 상태불안, 스트레스, 사회적지지와 같은 사회심리적 특성은 조산 발생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므로, 조기진통 임부를 산전 관리함에 있어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기진통 임부들의 사회적지지 체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와 더불어 조기진통을 진단받고 임부들이 입원할 때 겪게 되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며, 여러 영향요인에 노출되어있는 임부들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하여 조산 예방 및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유방암 생존자의 피로, 디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미혜¹, 임경희²

¹영남대학교 의료원 간호사, ²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피로, 디스트레스, 자기관리를 위한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피로, 디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는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D광역시 Y대학교 병원의 유방센터를 내원한 환자 1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5월 30일부터 2014년 8월 30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도구는 이란 등이 개발한 자기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Piper 등이 개발하고 개정된 Revised Piper Fatigue Scale, 미국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에 의해 개발된 Distress Thermometer & Problem List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피로 정도는 3.83 (2.11), 디스트레스는 4.31 (2.32), 자기효능감은 3.77 (0.53)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체 피로는 최종학력($t=2.26, p=0.025$), 현재 치료방법($t=2.19, p=.030$), 지각된 건강상태($t=-3.44, p=.001$), 경제적 부담($F=3.16, p=.04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디스트레스는 지각된 건강상태($t=-3.4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연령($F=4.56, p=.004$), 최종학력($t=-2.60, p=.010$), 결혼상태($F=3.64, p=.028$), 월 평균 수입($F=4.18, p=.007$), 지각된 건강상태($t=3.20, p=.002$), 치료비 부담($F=3.81, p=.02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피로($r=-.334, p<.001$), 자기효능감과 디스트레스($r=-.283, p<.001$)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로와 디스트레스($r=.561, p<.001$)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Key words): 피로, 디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유방암 생존자

6. 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로($t=-4.08, p<.001$), 연령($t=-2.64, p=.009$), 치료비 부담($t=-2.20, p=.029$)으로 17%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 유방암 생존자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피로 관리에 대한 관심과 피로를 조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유방암 생존자의 디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사정하고 적절한 중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병원 외래 이용 환자의 의료 커뮤니케이션 유형, 역량 및 만족도

양유리¹, 오익금²

¹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²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Background: Health communication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patient-centered care to meet successful health outcomes. However, there are limited studies about patients' communication style or competence.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ommunication style, competence and satisfaction of hospital outpatients.

Methods: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109 outpatients in a general Korean hospital. Reliable and valid questionnaires (Communication styl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Health communication satisfaction) were us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win 20.0 software.

Results: The mean age of the study sample was 46.33(SD=13.90) years, and more than 52% had visited hospital for less than 3 years. And 39.4%(n=43) patients' communication style was functional while others were non-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The level of communication competence (52.17 out of 75) and the health communication satisfaction (37.45 out of 50) among patients were moderate. Furthermore,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t=3.170$)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ommunication style ($p<.01$), while the health communication satisfac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And also,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health communication satisfaction ($r=.314$, $p<.01$). The variables which were found to b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ommunication satisfaction ($R^2=.264, p<.001$) were doctor's prescriptive attitude ($\beta =.409$, $p<.001$) and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beta =.312$, $p<.001$).

Conclusion: Thi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a priori would be the training of effective health communication strategies between health providers and patients. Additionally, more studies are recommended to explore remaining factors related with the health communication satisfaction

Key words: Health communication, Patient satisfaction, Competency, Styl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n Informational Leaflet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for Better Interaction between Nurse and Client

Hyo-Jin Kim¹, Hee-Young Kang²

¹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formational leaflet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nformational leaflet on client (patients and caregivers) satisfaction about the nurse–client interaction, client anxiety about and client satisfac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Methods: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80 clients who visited K hospital in G city, Korea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Of the 80 clients, 40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rest to the control group. The informational leaflet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cluding explanation with nurse–client interaction was provided in the emergency triage room individually to cli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their emergency medical service. The control group was provided emergency medical service following the existing medical procedure of emergency center without informational leaflet.

Results: Client satisfaction about the nurse–client interaction and client satisfac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the intervention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Client anxiety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informational leaflet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cluding explanation with nurse–client interaction could b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to increase client satisfaction and reduce client anxiety in an emergency medical center.

Key words: Access to information, Consumer satisfaction, Emergency medical service, Interactional relations

대학생의 성윤리 가치관에 대한 주관성 연구

박영례¹, 윤은자², 황윤영³

¹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건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³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연구목적: 서구식 사고방식의 유입과 함께 성에 대한 인식이 자유로워지고, 성의 상품화, 체계적인 성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윤리적 가치관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인초기에 성윤리가 어떻게 확립되느냐에 따라 건강한 가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윤리 가치관에 대한 주관적 구조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맞춤형 성교육 및 성상담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남녀 대학생 43명을 P 표본으로 하여 이들이 44개 Q-표본을 9점 Q-분류분포도 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QUANAL program을 이용하여 주 인자분석법으로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윤리 가치관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설명된 전체 변량은 60.4%였다. 제 1유형은 '보수적(전통적) 지고지순형'으로 명명하였고,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성파트너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함을 인정하지 않고, 성을 결혼과 결부시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의 성적 욕구표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성차별적 관점을 나타냈다. 제 2유형은 '개방적 타협형'으로 명명하였고,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 자유로우며, 성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과 생명윤리에 앞선 낙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시대흐름의 변화에 적합한 성윤리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 3유형은 '합리적 책임형'으로 명명하였고,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존중하면서, 성지식과 성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에 기반한 건강한 성과 임신을 중요시하는 주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윤리에 관한 주관성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성에 관한 실제적인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성상담프로그램 및 성관련 교과목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윤리 주관성 유형에 따른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주요어(Key words): 성윤리, 주관성, 대학생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Ulcerative Colitis

Cho, Ok-Hee¹, Yoo, Yang-Sook², Chung, Mi-young³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 Moo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ulcerative colitis.

Methods: A total 116 patients with ulcerative colitis were ask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illness-related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s for depression the 81.03% were normal, the 8.62% were mild depression, the 6.90% were moderated depression, and the 3.45% were severe. As for quality of life, the social functions was highest, followed by intestine-related symptoms, systemic symptoms, and emotional functions. Quality of life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subjective health status, age, and body mass index, and negatively to depression. Main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contained depression, subjective health status, physician's global assessment, age, days of loss in social life, and present abdominal pain.

Conclusion: Physical and psychosocial health problems related to ulcerative colitis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Studies are needed to develop, apply, and evaluate the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and psychosocial strategies to efficiently handle the illness.

Key words: Ulcerative colitis, Quality of life, Depression

Correlation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among freshman nursing students

Park, Hye-Seo¹, Cho, Ok-Hee², Hwang, Kyung-Hye³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Science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in the freshman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77 freshmen of nursing colleg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of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There was static correlation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in the freshman nursing students. And major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were meaningfulness in sense of coherence and psychological domain in quality of life.

Conclusion: These results were shown very important to improve meaningfulness in sense of coherence and psychological domain in quality of life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in the freshman nursing student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hat focus on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Key words: Nursing student, Sense of coherence, Quality of life

Noise in Intensive Care Units: Causes and Patients' Responses

김민영¹

¹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noise levels in intensive care units (ICUs) and to analyze the causes of noise and responses of the patients.

Methods: Noise levels were recorded in adult ICUs for 24 hours over a week from the patients' bedside with a sound level meter. Noise sourc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medical machines, health care providers, and the environment. Noises from the environment were recorded in an empty ICU side room. Responses to the noise of 125 patients admitted to ICUs were recorded using a questionnaire.

Results: The mean level of noise in ICUs was 58.5 dBA (range, 34.2 – 80.2). The causes of noise higher than 70 dBA were nebulizers and infusion/syringe pumps among medical machines, and drawer slamming, phone ringing, and stripping packages of medical fluids among environmental noises.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64% of the patients responded that ICUs was noisy and that they suffered from sleep disturbance due to noise.

Conclusion: Noise is considerably high in ICUs and is an annoying factor for the patients. Most noise sources are adjustable, and we should try to reduce their contributions to make ICUs environment more pleasant.

Key words: Noise, Intensive Care Units

Development of Smartphone Application Contents for Implementation Self-care of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 based on the Self-care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s –

Jeon, Jae-Hee¹, Kim, Kyunghee²

¹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²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evelopment of smartphone application content for implementing self care of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based on the self-care knowledge and healthcare educational needs.

Methods: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187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from two large sized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Gyunggi 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pearson Correlation, t-test, ANOVA and scheffé test.

Results: Result were as follows (a) intention to use of smartphone application was 93.1% (b) the knowledge of self-care was 33.22 out of 55 (c) the demand for education on healthcare was 214.81 and treatment component was the highest.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high demand on smartphone application of self-care for hepatitis B patients. And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knowledge and implementation of self care are required as well through developing smartphone application. The result identified through research on educational demand can be applied to the contents for smartphone application.

Key words: Chronic hepatitis B, Smartphone application, Self-care knowledge, Educational needs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국내 문헌고찰

박영수¹, 오의금²

¹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²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연구방법과 주요 결과들을 고찰함으로써,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의 역량수준 및 관련 요인들에 대한 최신 경향들을 파악하고, 향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이다. 문헌검색은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KoreaMed),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을 통해 학술지 및 학위논문으로 하였고, 출판년도는 최근 10년간(2005년~2015년)으로 제한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 ‘의사소통’ 등을 주요어로 하여 검색하였고, 학술지와 학위논문에 중복 게재된 경우는 배제하였다. 분석문헌 선택을 위해, 먼저 논문제목과 초록 검토 후, 초록만으로 문헌선택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을 찾아 검토하여 선정된 기준과 중복여부를 확인하였다. 일차적으로 총 68편이 검색되었으며, 중복문헌 18편과 선정기준에 맞지 않은 34편을 제외하고 최종 16편이 선정되었다.

연구결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국내 연구들 중 검토된 문헌 16편의 설계유형은 대부분 조사연구(14편)였으며, 주로 서울 및 경기 지역 종합병원(10편)에서 진행되었고, 중환자실 간호사와 의료진들(11편)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문헌의 출판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0년 이후(13편)에 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의사소통 주요 변수로는 소진, 직무스트레스, 간호업무성과, 환자안전, 이직의도, 갈등,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 간호환경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간호업무성과와 환자안전간호활동 수행, 소진 및 이직의도에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연구들마다 측정도구의 차이는 있었지만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병동 간호사 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낮으며 언어적 의사소통의 제한이 있는 대상자 간호에 있어서 의료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향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근거가 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Key words): 중환자실, 간호사, 의사소통

간이식 수혜자의 사회적 지지, 치료지시 이행, 건강관련 삶의 질

송정미¹, 오익금²

¹서울아산병원 간호사, ²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치료지시 이행, 건강관련 삶의 질을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시내 소재한 2,000병상 이상인 A 종합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인 간이식 수혜자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8월 14일부터 2014년 9월 17일까지였다. 연구 도구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사회적 지지, 치료지시 이행, 건강관련 삶의 질로 구성 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사후검정,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이식 수혜자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3.93점(5점 척도)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요인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물질적 지지 요인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 특성에서는 여성, 간이식 모임 참여 시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간이식 수혜자의 치료지시 이행 정도는 평균 4.32점(5점 척도)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9개의 세부 영역 중 외래 방문 영역이 가장 높았고 간이식 외과 외 다른과 진료 영역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 특성에서는 여성, 무직, 가족이 수입원인 경우, 간이식 모임 참여 시, 수술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에서 치료지시 이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간이식 수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평균은 60.10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삶의 질 8개 영역 중 가장 높은 것은 신체적 기능이었고 가장 낮은 것은 사회적 기능이었다. 대상자 특성에서 남성, 대졸 이상, 직업이 있는 경우, 이식 전 후 직업 변화가 없는 경우, 본인이 가족의 주 수입원인 경우, 가계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간이식 모임 참여 시, 간이식 후 경과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간이식 수술을 본인이 결정 한 경우에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요어(Key words): 간이식, 사회적지지, 치료지시이행, 삶의질

넷째, 사회적 지지와 치료지시 이행은 양의 상관관계($r=.458, p<.001$)를 보여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치료지시 이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간이식 수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결과, 가계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치료지시 이행 정도가 높을수록, 간 이식 경과 기간이 길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 간이식 수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식 후 치료지시 이행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among Male Nursing Students

Eun Yi Yeom¹, Hae Ok Jeon²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woon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among male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total of 163 male nursing students who were in five universities located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of Korea were recruited via convenience sampling from April to May 2014. All participants were assessed wit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bout men's gender role conflict, self-esteem and depression.

Results: The mean age of subjects was 21.4(± 3.10) years. Two main reasons they decided on nursing for major selection were their own aptitudes and interests(36.4%) and sufficient opportunity to get a job(35.3%). About 69% of participa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major choice and more than half of them(68.8%) reported that the hardest thing related to studying nursing was difficulties of major subject. Gender role conflict, self esteem, and depression were medium level. Specifically, the score on gender role conflict was 120.5(range:37-222), the self-esteem score was 26.0(range:10-40), and depression was scored as 30.9(range:0-60). Regarding depression, 69.3% of participants did not have depression while 30.7% have moderate or higher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The depression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role conflict($t=3.41$, $p=.001$) and self-esteem($t=-2.93$, $p=.004$) scores. Gender role conflict($\beta =0.28$, $p=.036$) and self-esteem($\beta =-0.21$, $p=.111$) accounted for 8.7%($F=3.59$, $p=.035$) of depression of subjects.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a need to develop programs that effectively reduce gender role conflict and promote the self-esteem of male nursing student to control depression.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 which other factors that could affect depression of male nursing student are examined.

Key words: Conflict(Psychology), Depression, Nursing, Self-concept

Urinary Incontinence and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for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Jeju

Song, Hyo Jeong¹

¹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valence of urinary incontinence (UI) and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LUTS), and to evaluate the affecting factors on LUTS of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Jeju,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a community based UI management program.

Methods: A community–based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to November 2010. 157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4 community senior centers and one community senior school serving for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in Jeju–si.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guide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includ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ody mass index, adherence to regular exercise, depression, urinary incontinence, LUTS (measured via the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test predictors of LUTS.

Results: Of all the older adults, 24.8% had experienced UI more than once a month during the prior 6 months. Among the older adults, 75.2% had no UI, 14% had mixed UI, 5.7% had stress UI, and 5.1% had urge UI. The mean LUTS score of the older adults was 9.4 (IPSS range 0–35). Concerning the reported severity of LUTS, 47.8% of the older adults were in the moderate and severe group. In each symptom score of LUTS (range 0–5), nocturia was the highest 2.3, frequency 1.6, and weak stream 1.5. LUTS of subjects with higher BMI, no regular exercise, depression, and UI were significantly higher.

Conclusion: Urinary incontinence was found as very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LUTS in community–dwelling the older adults. Community based management program for UI and LUTS of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Key words: Urinary incontinence,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Older adults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hronic Pain

Hyea Kyung Lee¹, Hee Kyung Kim²

¹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research herein aims to grasp pain of patients with chronic pain, pain catastrophizing, pain-coping efficac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analyze factors affect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pain.

Methods: As research participants, 200 outpatient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who suffered from chronic pain due to musculoskeletal disease at 3 orthopedic centers and 1 rehabilitation medicine center in C-si, and understood a research purpos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 tool used for this research is Numerical Rating Scale (NRS) for pain assessment, a tool developed by Sullivan, Bishop & Pivik for pain catastrophizing, Coping Strategy Questionnaire (CSQ) for pain coping efficacy, and SF-36 (Medical outcomes study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f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For research data, used and analyzed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show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cores of 93.4 points, a score above average. A variable most highly influencing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s catastrophizing ($\beta = -4.693$, $p < .001$) accounting for 22.2%, followed by age ($\beta = 11.244$, $p < .001$), pain ($\beta = 6.359$, $p < .001$), pain coping ($\beta = 6.359$, $p < .001$), and employment status ($\beta = -5.041$, $p < .001$) accounting for 12.5%, 3.1%, 3.9%, and 1.6%, respectively, and out of the 5 factors above indicates a total of 41.3% ($F = 43.437$, $p < .001$) f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Conclusion: To enhanc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suggested was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considering catastrophizing, age, pain, employment status, and pain coping. Meanwhile, a prerequisite is further research with additional significant variable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as there is a lack of research in South Korea on it with a variable of catastrophizing, having 41.3% for explanation power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Key words: Chronic pain, Pain coping, Catastrophiz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Level of Anesthesia Knowledge and Uncertainty among Preoperative Patients

Kim Young Man¹, O Eui Geum²

¹RN., MSN., Severance Hospital,

²Professor, Colled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Objectiv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nesthesia knowledge and uncertainty in preoperative patients.

Methods: The descriptive and cross-sectional designed research was performed. Data was collected from November 2nd to November 30th in 2014 in “S” tertiary hospital in Seoul. A total of 193 adult pati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person. The study used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is consist with modified Standard Anesthesia Learning Test(SALT) scale to assess the level of anesthesia knowledge and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MUIS) to measure uncertainty in preoperative patient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21.0 program.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anesthesia knowledge and preoperative uncertainty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r = -.26, p < .001$). Anesthesia knowledge of adult patients scheduled for surgery was an average 7.53 ± 1.82 points out of 12 points. The level of anesthesia knowledge resulted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age($t=4.09, p < .001$), education level($t=-4.98, p < .001$), and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ASA) physical status($F=4.03, p = .019$). Preoperative uncertainty scores of subjects were relatively low as 38.51 ± 10.99 out of 100 points. Uncertaint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epartment of surgery($F=3.43, p = .010$) and type of surgery ($t = -2.78, p = .006$).

Conclusion: Preoperative adult patients had moderate level of anesthesia knowledge and relatively low degree of uncertainty. Consequently, the higher the level of anesthesia knowledge, the lower the uncertainty in patients scheduled for surgery. Therefore we should provide an anesthesia education program for preoperative patients. For the anesthesia education program to be effective it should be customized in accordance with the patients' characteristics.

Key words: Preoperative, Anesthesia knowledge, Uncertainty, Surgery

Lipopolysaccharide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감국 추출물의 nitric oxide 생성 억제효과

강경아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연구목적: 인체 내 염증은 조직손상이나 미생물의 침입으로 일어나는 비특이적인 생체의 방어기전의 하나로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물질에 의해 활성화된 면역세포에서는 nitric oxide (NO), cyclooxygenase-2 (COX-2), prostaglandin E2 (PGE2)와 같은 염증매개 인자들을 분비함으로써 염증반응을 유발한다. 과도한 염증반응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해 현재의 치료방법은 steroid, NSAIDs 등과 같은 항염증약물의 투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약물은 위장장애, 지혈반응 지연, 심장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부작용이 감소된 항염증물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일상 식생활에서 섭취하는 식품으로부터 항염증 소재를 얻고 예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에 lipopolysaccharides(LPS)로 염증 반응을 유도한 후 감국 추출물을 처리하여 NO의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감국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LPS로 염증 반응을 유도한 Raw 264.7 세포에 감국 추출물을 농도별 (1 μ g/ml, 10 μ g/ml, 100 μ g/ml)로 처리하였으며 LPS 단일 처리한 후에 각각의 NO 생성량과 PGE2 양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였고 유의성은 Student's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국 추출물의 NO 생성 억제효과는 감국추출물을 1, 10, 100 μ g/ml로 각각 처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인 억제 효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100 μ g/ml에서는 LPS 처리군과 비교하였을 때 70%이상 감소되었다. 또한, PGE2의 발현량도 감소하여 감국 추출물에 의해 농도 의존적인 억제 효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감국 추출물이 NO 생성 억제 효과 및 항염증 작용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감국은 일상 식생활에서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부작용이 감소된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임상에서 염증성 질환에 대해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NO와 PGE2 외에 다양한 염증매개인자와 관련하여 감국 추출물의 효과에 대한 기전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inflammation, anti-inflammatory agents, compositae

성인의 생활습관, 우울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이순희¹, 이영주²

¹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신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부 성인의 생활습관, 우울, 비만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만성질환인 비만을 예방하고 성인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S시 와 I시에 거주하는 성인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4년 7월 10일 부터 8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walker et al이 개발하고 허은희, 조영신이 수정한 건강증진 생활양식도구와 우울척도 도구로 Yesavage et al이 개발한 GDS를 기백석, 이철원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GDSSF-K를 사용하였으며, 비만도는 BMI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생활습관은 4점 만점에 평균 2.48 ± 0.42 점이었으며, 세부영역으로 식습관 2.47 ± 0.69 점, 휴식 및 수면습관 1.99 ± 0.68 점, 스트레스 관리습관 2.08 ± 0.63 점, 음주습관 3.67 ± 0.56 점, 운동습관 2.28 ± 0.85 점 이었다. 우울은 15점 만점에 5.22 ± 1.99 점, 비만도는 평균 23.83 ± 4.20 이었다. 2) 대상자가 지각하는 우울은 휴식 및 수면습관($r=.247, p=.022$)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습관은 휴식 및 수면습관($r=.477, p<.001$)과 스트레스 관리습관($r=.470,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 관리습관은 휴식과 수면습관($r=.455,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성인의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습관($\beta = -.271, p=.026$)과 세부영역인 음주습관($\beta = -.320, p=.011$)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대상자의 비만도에 대해 15.6%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 본 고찰 결과 퇴원환자 간호중재 프로그램은 간호사 주도의 사정, 교육, 계획, 가정방문, 전화방문, 의뢰로 구성하고 의료이용, 삶의 질, 만족도, 의료비용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것을 시사한다. 향후 명확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잘 설계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Key words): 생활습관, 비만도, 우울, 성인

